

政策討議시리즈
1988. 3 35

農產物의 輸入開放과 韓國農業의 課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리말

우리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관계없이開放化의 물결은 세계적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오랜기간의 貿易赤字에서 벗어나 10大貿易國으로 浮上, 86년부터 많은 혁자 폭을 얻게되자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제국들의 輸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國內外的으로 높은 價格差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자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개발된 農業分野를 개방하여 경제적으로 약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새로이 개발하여開放化에 對應할 수 있는 自生力を 기른 다음에 輸入問題를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더욱이 都農間의 均衡發展과 食糧安保 등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현안문제도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通商摩擦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만 농산물의 輸入問題를 다룰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開放壓力의 背景과 우리 農業 및 農村의 現實을 진단하고 신속한 對應력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안될 진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번 討論會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政策擔當者와 農漁村 現場에서 뛰고 있는 農林水產部 出入記者 전원을 초청하여 일차적으로 意見을 闡陳받고자 88년 2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農產物 輸入開放에 관한 政策討論會”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책자는 동 政策討論會의 主題發表와 討議內容을 정리한 것으로서 앞으로 關聯政策樹立 및 研究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1988. 3.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榮鎮

目 次

머 리 말

主題發表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의 背景과 우리의 與件.....	許信行.....	1
農產物 輸入開放에 대한 長短期 對應方案.....	李載玉.....	19
農產物 輸入開放 現況과 對策.....	金漢坤.....	42
討 議 內 容		62

主題發表

農產物 輸入開放壓力의 背景과 우리의 與件

許 信 行
農經研 研究委員

I. 輸入開放壓力의 震源地

1. 우리나라의 輸出入 總括

단위 : 百萬 달러

年 度	金額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78	12,710.6	14,971.9	△ 2,261.3
1979	15,055.5	20,338.6	△ 5,283.1
1980	17,504.9	22,291.7	△ 4,786.8
1981	21,253.8	26,131.4	△ 4,877.6
1982	21,853.4	24,250.8	△ 2,397.4
1983	24,445.1	26,192.2	△ 1,747.1
1984	29,244.9	30,631.4	△ 1,386.5
1985	30,283.1	31,135.7	△ 852.6
1986	34,714.5	31,583.9	3,130.6

- 慢性的 貿易赤字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6 年임。
- 貿易黑字幅의 急增 : ('86) 31 億 달러 → ('87) 92 億달러

2. 主要國別 輸出額 構成比 및 順位, 1986

區 分	構 成 比	輸 出 順 位
美 國	40.0	1
日 本	15.6	2
韓 國	4.9	3
캐나다	3.6	4
西 獨	3.6	5
英 國	3.0	6
사우디아라비아	2.5	7
프 랑 스	1.6	8
오스트레일리아	1.5	9
싱 가 포 르	1.5	10

* 1986 年 輸出總額 : 347 억 달러

3. 主要國別 輸入額 構成比 및 順位, 1986

區 分	構 成 比	輸 入 順 位
日 本	34.4	1
美 國	20.7	2
西 獨	3.8	3
오스트레일리아	3.4	4
말 래 이 지 아	2.9	5
캐나다	2.2	6
프 랑 스	2.2	7
사우디아라비아	2.0	8
英 國	1.4	9
自 由 中 國	1.4	10

* 1986 年 輸入總額 : 315 億 달러

4. 主要國別 輸出入 現況,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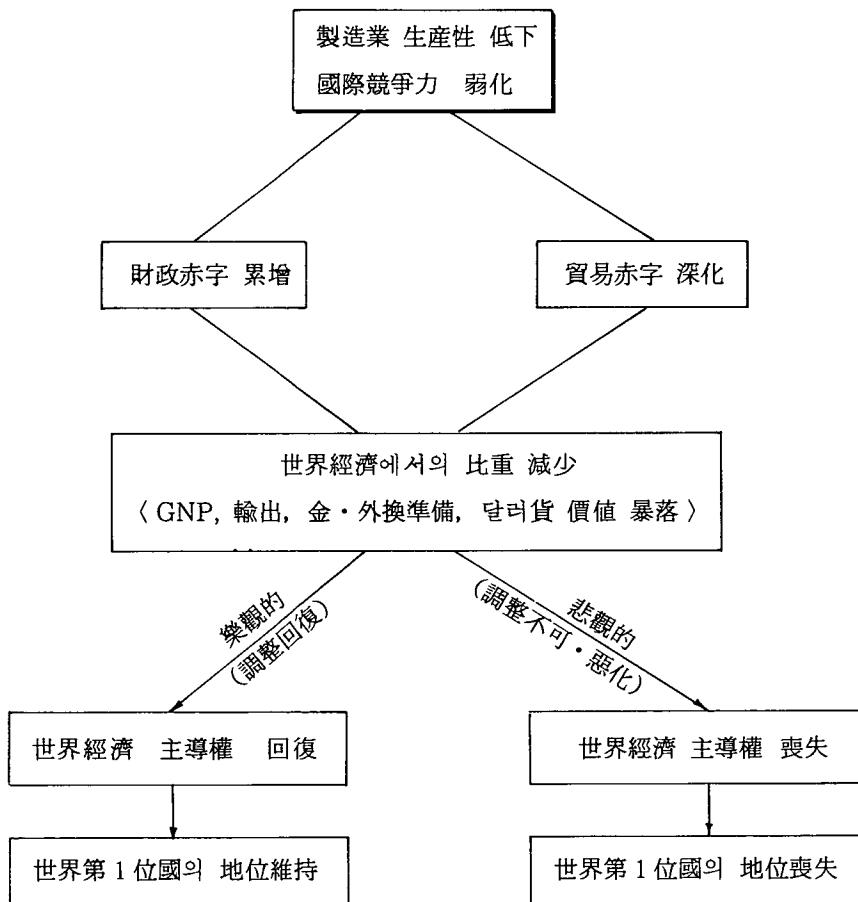
단위 : 百萬 달러

區 分	輸 出 額 (A)	輸 入 額 (B)	貿易收支 (A - B)
美 國	13,880	6,544	7,335
日 本	5,426	10,869	△ 5,443
홍 콩	1,690	400	1,290
캐 나 다	1,247	709	538
西 獨	1,241	1,215	25
英 國	1,034	454	580
사우디아라비아	854	634	220
프 랑 스	543	705	△ 162
오스트레일리아	534	1,079	△ 545
싱 가 포 르	531	215	316

- 우리나라가 輸出을 많이하는 順位別로 10 個國을 선정하고 보면, 輸出超過國은 美國, 홍콩, 英國, 캐나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西獨의 順位로 나타남.
- 홍콩의 特殊事情과 輸出金額의 輕重을 따질 때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開放壓力의 대부분은 美國에서 온다고 판단됨.

II. 美國의 經濟事情

1. 美國經濟에 대한 두 가지 視角



- 美國이 世界經濟 主導權을 회복하여 第1位國의 地位를 계속 維持 시키려는 戰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對韓輸入開放壓力의 加重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2. 世界經濟에서 美國의 比重과 位置

단위 : %

區 分		1950	1960	1970	1980	1985
對世界 GNP 比 重	美 國	34.2	29.7	26.5	25.4	23.4
	日 本	2.8	4.3	7.3	8.8	9.9
	西 獨	5.2	7.1	6.9	7.0	7.7
對世界 輸出額 比 重	美 國	18.0	17.4	15.1	11.7	11.9
	日 本	1.4	3.4	6.8	6.9	9.9
	西 獨	3.4	9.6	12.0	10.2	10.3
對世界 金·外換 準 備 比 重	美 國	50.1	32.3	15.5	6.1	8.8
	日 本	1.3	3.3	5.2	5.7	5.8
	西 獨	3.4	11.8	14.6	11.2	10.0
\$當換率	日本(엔)	361.1	360.0	358.1	226.7	238.5
	西獨(DM)	4.20	4.17	3.65	1.82	2.94

* 1980, 1985년의 GNP는 GDP임.

환율은 年平均 기준임.

자료 : Brookings Institution 및 IMF.

- 世界 GNP中 比重 : ('50) 34% → ('86) 20% 내외
- 世界의 總輸出中 比重 : ('50) 18% → ('85) 11.9%
- 世界의 金·外換中 比重 : ('50) 50.1% → ('85) 8.8%
- 달러貨價值의 持續的 下落 (\$당)

日本 : ('85) 238.5 円 → ('87.12) 122.0 円

西獨 : ('85) 2.94 DM → ('87.12) 1.58 DM

3. 美國의 財政赤字

단위 : 億 달러						
區 分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歲 入	6,178	6,006	6,665	7,341	7,691	8,541
歲 出	7,457	8,083	8,518	9,463	9,898	10,021
赤 字	1,279	2,077	1,853	2,123	2,207	1,480
赤字의 對 GNP 比率 (%)	4.1	6.3	5.0	5.4	5.3	3.3

* 1987년은 잠정치임.

자료 : 美 재무성, 관리예산처, 상무성 및 KIET

- 美國의 財政赤字는 1985 ~ 86년 2천억 달러를 초과했고, '86년 稅法 改正으로 약간 밀들기는 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큼.
- 財政赤字 發生의 原因
 - 레이건 行政府의 減稅政策 (財政收入의 相對的 減少)
 - 國防費 過多支出 : ('80) 22.7% → ('85) 26.7%
 - 社會福祉費와 教育費 等의 支出抑制 失敗

4. 美國의 貿易赤字

단위 : 億 달러			
區 分	輸 出 (A)	輸 入 (B)	收支(A - B)
1980	2,255	2,569	△ 314
1981	2,387	2,733	△ 346
1982	2,164	2,548	△ 384
1983	2,056	2,698	△ 642
1984	2,239	3,463	△ 1,224
1985	2,188	3,524	△ 1,336
1986	2,268	3,829	△ 1,561
1987	2,281	3,871	△ 1,590 ¹⁾

1) 1987년은 1 ~ 11월의 實績임.

자료 : 1980 ~ 86 : USDC (美商務省)

1987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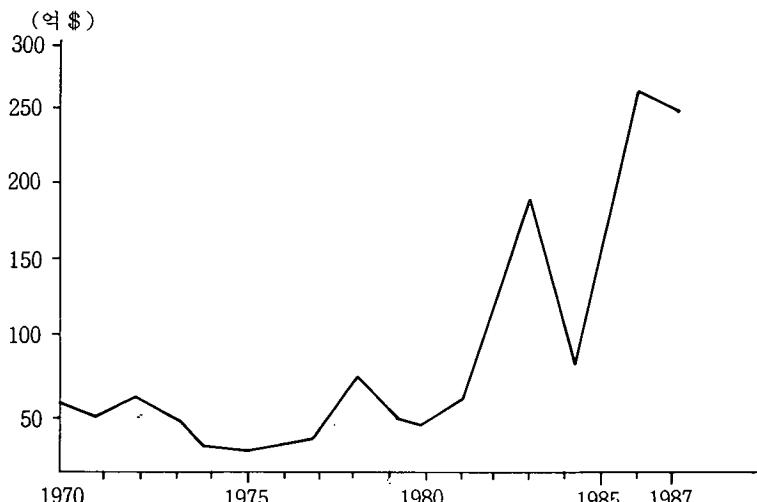
- 年間 貿易赤字가 1984 年부터 1,000 억 달러를 超過
- 1987 年에 1 ~ 11 月까지 1,590 억 달러에 이릅 (年間 1,700 억 달러 예상)
- 貿易赤字 增加原因
 - 1985 年初까지 지속된 달러貨 強勢 및 과도한 輸入需要誘發
 - 消費財, 資本財 및 工業用 化學製品, 農產物 등 國際競爭力 弱化
 - 南美의 外債增加로 인하여 美國商品 輸入減少
 - 製造業의 生産性이 하락하고, 勞動生産性 증가율이 다른 先進國에 비해 떨어짐.

5. 農業에 대한 美國政府의 危機診斷

가. 農業補助金의 支拂擴大

- 農業補助金은 增加趨勢에 있으며 1987 年에는 260 억 달러에 해당함 (農家所得의 35 %가 補助金에 의존한 셈).

〈農業補助金 支拂變動〉



* 1987 年은 추정치

資料 : Wall Street Journal

- 약 20 %의 美國農家가 破産狀態에 이른
- 農產物의 過剩生產 持續
- 레이건 大統領은 1987年 7月 世界 各國이 2000年까지 農業에
대한 모든 補助金을 철폐할 것을 提議함.

4. 美國農產物의 輸出不振

〈美國의 農產物 貿易變動推移, 1975~87〉

단위: 億\$, 百萬t

區 分	1975	1980	1981	1985	1986	1987
수 출 액	219	405	438	312	263	279
수 입 액	95	173	172	197	209	206
收 支	124	232	266	115	54	73
수 출 량	94	164	162	126	110	129
〈品目別輸出額〉						
곡 물 (사료)	115	186	219	134	97	93
油種實 및 製品	49	100	94	64	65	65
면 화	10	30	22	20	7	14
담 배	9	13	13	16	13	12
과 실 • 채 소	12	27	31	26	27	32
설탕 • 열대작물	4	8	14	8	8	9
가축 • 육류	14	31	31	33	35	40
유 製 品	1	2	2	4	4	5
雞 產 物	1	5	8	4	5	6
종 자	3	3	4	4

* 年度는 會計年度임 (前年 10. 1 ~當年 9. 30)

資料: USDA

- 1980 ~ 81年을 최고로 하여 輸出金額과 輸出量이 減少
 - 輸出의 主宗을 이루는 穀物 (飼料 포함)의 價格下落이 輸出額 減少의 큰 原因

- 輸出競爭力 弱化
- 1985 年 12 月 農業保護政策 탈피를 위하여 소위 新農業法 (Food Security Act of 1985) 을 採擇, 施行하고 있으나 아직 큰 效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다음과 같은 輸出補助金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農產物의 輸出이 不振함.
 - ①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
 - ② CCC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 ③ PL 480 Title I / III
 - ④ TEA(Targeted Export Assistance Program)
- 1985 年 이후 價格이 크게 떨어짐.
 - 밀 : 1987 年 평균가격은 1977 年과 비슷한 수준 (112 : 113)
 - 옥수수 : 1987 年 평균가격은 1980 年의 56 % 수준 (171 : 95)
 - 대 두 : 1987 年 평균가격은 1980 年의 68 % 수준 (323 : 221)
- 1988. 1. 20 的 價格은 상승하였으나 아직 몇년전의 가격에 못 미침 (옥수수 : \$ 112, 대두 : \$ 262, 밀 : \$ 127)
- 價格下落으로 輸出物量이 增大되어도 輸出金額은 減少
 - 밀 (밀가루 포함) : 1986 年보다 1987 年에 輸出物量이 11 % 增加했으나 金額은 11 % 減少
 - 옥수수 : 輸出物量 27 % 增加, 輸出金額 7 % 減少

〈主要農產物 國際價格 變動, 1980~87〉

단위 : \$ / M_t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옥수수	171	167	129	156	154	130	104	95
대 두	323	312	260	295	294	237	217	221
밀	161	165	158	159	142	139	116	113

資料 : 한국사료협회, 제분협회

다. 農產物 在庫量 擴大

<世界와 美國의 穀物生產量, 供給量, 交易量, 在庫量, 1987.9>

단위 : 百萬Mt

區 分	1985／86	生 產 量		供 納 量		交 易 量		在 庫 量	
		世 界	美 國	世 界	美 國	世 界	美 國	世 界	美 國
밀	1985／86	499	66	625	105	96	25	137	52
	1986／87	529	57	666	109	102	27	146	49
	1987／88	506	58	652	107	105	33	135	47
옥수수	1985／86	483	225	544	268	62	32	124	103
	1986／87	476	210	599	312	64	39	148	125
	1987／88	448	181	596	307	66	41	137	116
총곡물	1985／86	1,665	345	1,921	446	204	63	346	181
	1986／87	1,680	314	2,026	497	214	77	384	205
	1987／88	1,614	280	1,998	486	216	85	351	189
대두	1985／86	97	57	115	66	26	20	23	15
	1986／87	100	55	124	69	29	21	22	13
	1987／88	101	53	123	66	27	18	22	13

註 1) 1986／87년도는 추정치이며, 1987／88년도는 예측치임

2) 총곡물은 밀, 옥수수, 쌀,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등

3) 재고량=공급량 - (소비량 + 교역량)

공급량=생산량 + 前年度 재고량

資料: USDA

- 美國의 生產減縮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他國의 增產이 현저하여
美國 農產物의 輸出不振(지난 10년간 美國의 生產增加 5%, 他國 25%)
- 世界의 總 穀物 在庫量中 美國의 比重: 53.8%

6. 쇠고기 輸出入 現況과 穀物

〈世界와 美國의 쇠고기(Beef & Veal) 輸出入〉

단위 : 千M^t (枝肉)

區 分		1985	1986	1987 ¹⁾
生 產	世 界	43,415	43,979	43,855
	美 國	10,997	11,292	10,802
輸 出	世 界	4,843	5,333	5,172
	美 國	151	239	275
輸 入	世 界	3,843	4,368	4,265
	美 國	948	978	991

1) 참정치.

資料 : USDA

〈美國의 쇠고기 輸出內容〉

단위 : 千M^t

區 分	1986	1987 ¹⁾
精肉(Red Meat)	220	260
雜肉(Variety Meat)	202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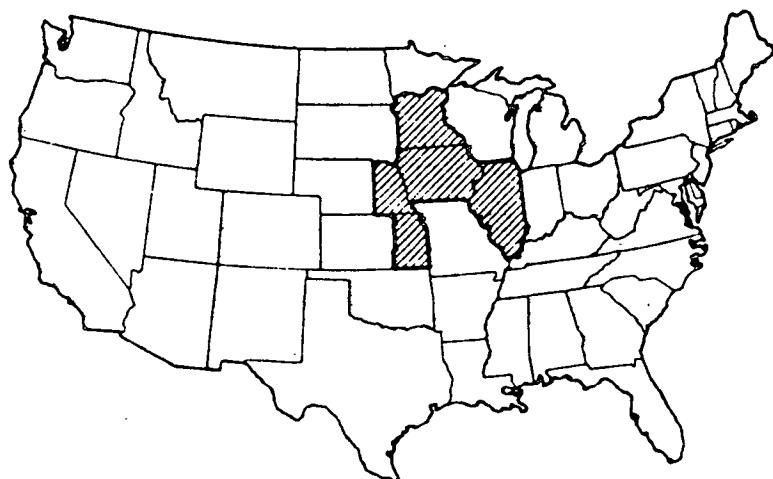
1) 참정치

資料 : USDA

- 美國의 쇠고기 生產量은 '86년 全世界의 24.6%나 해당되지만 國內消費가 많음으로써 輸出보다 輸入量이 더 많은 실정임.
- 美國의 肉牛主產地는 5個州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연간 370만t씩 輸入하는 옥수수의 主產地는 20餘個의 州에 해당됨으로써 美國農民의 利害關係는 옥수수에 더 클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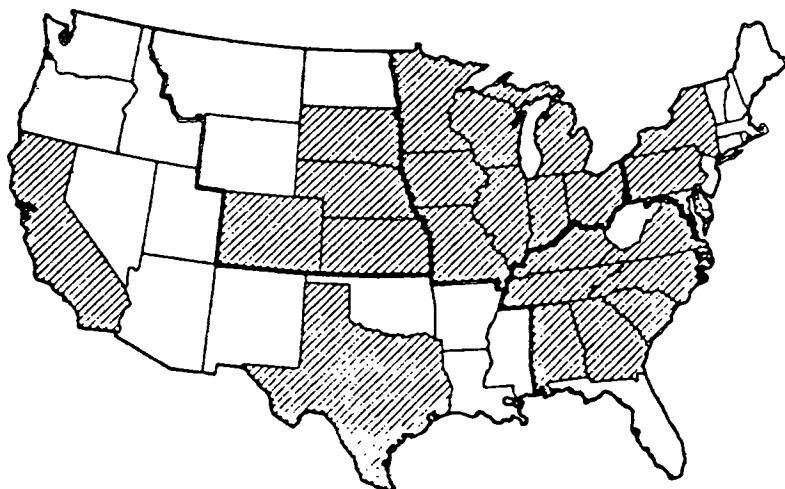
〈美國의 肉牛 主產地〉

Fed Cattle Production Region



〈美國의 옥수수 主產地〉

Corn Production Regions



III. 우리나라의 農村與件

1. 農業의 低開發로 開放化에 대한 對應力 缺如

- 韓國農業은 1968년까지 自給自足的인 生計農業으로 머물러 있다가 1970년대부터 商業農을 指向하는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음.
- 傳統的인 農業을 効率的인 商業農으로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先進諸國에서와 같이 農業의 現代化 作業이 1970年代初부터 있어야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過程이 소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 開放化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を 갖추지 못함.
- 「로스토우」교수의 發展理論과 같이 工業에서는 離陸準備 → 離陸 → 成熟의 段階를 거친 다음에 開放化를 촉진하듯이 農業도 成長品目 위주의 선택적 開發方式을 導入하여 成熟段階까지 現代化를 추진한 다음에 開放化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努力이 缺如됨으로써 現代的인 工業과 前近代的인 農業의 二重構造를 노출 輸入開放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임.
- 比較優位論의 성립근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生產資源(人的資源 까지 포함)의 完全雇傭을 가장 중요한前提로 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段階에서 쇠고기의 輸入을 開放하게 되면 소를 飼育하던 5백만의 農民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農業內部에서 마저 輸入增加와 過剩生產으로 다른 所得作目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고로 쇠고기의 輸入開放은 바로 農家所得減縮과 直結됨.

2. 零細小農의 低所得性과 支出增加

〈都·農間 所得比較〉

단위 : 千원, %

耕 地 規 模	1984	1985	1986
0.5 ha 미 만	3,904 (30.8)	4,078 (30.1)	4,348 (30.5)
0.5 ~ 1.0	4,699 (35.8)	4,902 (35.6)	5,233 (34.8)
1.0 ~ 1.5	5,556 (19.8)	5,708 (20.3)	5,833 (20.3)
1.5 ~ 2.0	6,940 (8.1)	6,982 (8.3)	7,082 (8.4)
2.5 ha 이 상	8,638 (5.5)	8,622 (5.7)	9,233 (5.9)
農 家 平 均	5,549	5,736	5,995
都市勤勞者家口所得	4,828	5,172	5,772

註 : () 안은 農家構成比

0.5 ha미만은 경종의 農家比率로 포함됨.

- 엄격한 의미에서는 統計資料의 落集目的과 基準이 다르기 때문에 都農間의 所得比較가 어려운 것이지만, 次善의 方法으로서 都市勤勞者 家口所得과 農家階層別 所得을 비교해 보면 1 ha미만의 零細小農의 所得은 매우 낮고 이들의 構成은 全體農家の 65.3% ('86)에 해당됨.
- 農家負債는 1,784 千원 ('84), 2,024 千원 ('85), 2,192 千원 ('86)으로 急增, 政治社會的인 문제로까지 飛化되고 있음.
- 農家の 教育費는 과거와 달리 都市勤勞者家口의 教育費보다 더 많아지고 있음.

단위 : 千원

區 分	1984	1985	1986
農 家	547	609	643
都市勤勞者家口	384	423	436

3. 農家經濟에서 차지하는 소의 比重

- 1983년 이후 50% 내외의 農家가 소 및 羚소를 飼育하고 있음.

단위 : 千戶, %

區 分	農 家 口 (A)	소飼育農家口 (B)	B / A
1980	2,155	967	44.9
1981	2,030	876	43.9
1982	1,996	919	46.0
1983	2,000	1,001	50.0
1984	1,974	1,075	54.4
1985	1,926	1,092	56.7
1986	1,906	1,034	54.2
1987	1,871	892	47.6

- 農業粗收入中 養畜收入의 比重이 높아짐.

단위 : 千원, %

區 分	農 業 粗 收 入 (A)	養 畜 收 入 (B)	B / A
1980	2,342	284	12.1
1981	3,269	530	16.2
1982	3,998	863	21.6
1983	4,702	1,193	25.4
1984	5,277	1,023	19.4
1985	5,477	932	17.0
1986	5,619	991	17.6

- 農家資產에서 소가 차지하는 比重은 소값에 따라 다르지만 소값이 높았던 '83년에는 10% 가까이 되고, 土地 (68.7% : '86), 建物 (11.8% : '86) 다음으로 중요한 資產에 해당됨.
- 소는 또 어려운 農家經濟의 贯蓄手段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子女들의 學資金 마련이나 土地購入 및 冠婚喪祭를 치르는데 있어서 모든 마련 手段으로 이용됨.
- 1980년대 중반 소값 과동의 쓰라린 경험.

4. 農水產物의 輸入增加와 所得源萎縮

〈農水產物의 類別 輸入實績〉

단위 : 百萬 달러

區 分	1980		1983		1986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穀 物 類	1,241	54.7	1,197	54.6	1,044	54.2
肉 類	23	1.0	155	7.1	12	0.6
油 脂 作 物 類	40	1.8	29	1.3	37	1.9
動 植 物 性 油 脂	125	5.5	146	6.7	129	6.7
菜 蔬 類	6	0.3	26	1.2	35	1.8
산 動 物 類	10	0.5	67	3.1	7	0.4
茶 · 香 辛 料	37	1.6	30	1.4	89	4.6
糖 類	534	23.5	224	10.2	187	9.7
煙 草	78	3.4	17	0.9	14	0.7
植 物 性 類 ¹⁾	3	0.1	74	3.4	44	2.3
水 產 物	34	1.5	49	2.2	108	5.6
其 他	139	6.1	176	8.0	221	11.5
計 ²⁾	2,270	100.0	2,190	100.0	1,927	100.0

1) CCCN 23.04 의 實적임.

2) CCCN 1 ~ 24 類의 수입 實적임.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穀物의 輸入量이 '80년 505 만t에서 1986년 843 만t으로 계속 늘어나 穀物의 自給度가 44.5 %로 떨어짐.
- 菜蔬와 果實, 鮑지, 鰐 등의 廉產物 生產까지 過剩되고 있어서 새로운 消費나 輸出用 品目을 開發하지 않고서는 農家經濟의 成長을 기대하기 어려움.

5. 農外所得成長의 鈍化

- 農外所得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錯解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음.
- 農村工業化는 많은 時間을 必要로 할 뿐만 아니라 農村人力의 雇傭에 限界를 안고 있고, 또 地域的인 고른 分散을 기대하기 어려움.

〈農外所得의 構成比 變動〉

단위 : 千원, %

區 分	農 家 所 得 (A)	農 外 所 得 (B)	B / A
1970	256	62	24.2
1975	873	158	18.1
1980	2,693	938	34.8
1985	5,736	2,037	35.5
1986	5,995	2,318	38.7

IV. 對 應 戰 略

1. 開放化에 대한 基本姿勢

- 世界經濟의 統合的인 변화의 물결과 國內市場의 狹小라는 차원에서 對外開放化 政策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前近代的인 農業分野를 近代的으로 개발된 工業分野와 동시에 開放化시키면 많은 무리를 낳을 것임.
- 農業의 開放化는 農業의 近代化作業과 農村工業化的 推進程度와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2. 쇠고기의 輸入對應

- 우리나라 農家經濟의 어려움과 연간 4 백만噸에 가까운 飼料穀物 輸入의 중요성을 美國에 설득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호텔용 고급 쇠고기의 輸入을 허용하되 畜協으로 하여금 輸入케 하여 단기적으로 販賣差額을 소 飼育農家에 補償하는 方案을 강구함.
- 長期的으로 소 飼育의 規模擴大를 통해 外國과 競爭하기를 원하는 農家에 대해서는 專門的인 生產으로 유도하고, 他品目을 원하는 農家에 대해서는 農業의近代化 計劃과 연계시켜 成長品目的 生產으로 전환시킴.

3. 農業의 近代化方向과 農村工業 育成

- 農業의近代化 作業은 國內消費 및 輸出用 成長品目 위주의 새로운 基盤造成부터 시작돼야 할 것임.
- 農業의 基盤造成은 農地의 交換分合을 통해서 분산된 土地를 한 곳으로 모으고, 機械化에 알맞게 擴大 整備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技術革新과 人力開發을 통해 高能率生產體制를 확립하고 최소한 成長品目的 國際競爭力を 提高시킴.
- 生產者團體로 하여금 生產調節을 하게 유도하고, 輸出擴大에 몰두할 수 있는 誘引策을 강구함.
- 農業의近代化 作業과 병행해서 農村工業을 과감하게 추진, 農外所得源을 늘려나감으로써 農漁民의 雇傭機會를 늘리고 都農間 均衡所得의 유지를 가능케 할 때 무리없는 開放化 政策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임.

主題發表

農產物 輸入開放에 대한 長短期 對應方案

李載玉

農經研 首席研究員

I.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入과 輸入開放의 趨勢

- 우리나라 總 農林水產物 輸入은 1982 年以來 24 ~ 29 억불의 水準이
며, 全體 輸入의 6 ~ 9 %를 차지하고 있음.
- 總 農林水產物 輸入中 農產物, 水產物, 林產物(原木 포함)의 輸入比
重은 대략 70 %, 3 %, 24 %임.
- 非食用 農產物 輸入은 原皮, 原棉, 天然고무, 羊毛 등 18 억불에 상
당함(1986 年).
- 우리나라 輸入自由化率은 1980 年 이후 계속 增加하여 總 輸入自由化
率, 1 次 및 食料品, 農林水產物 各各의 輸入自由化率은 1987 年 말
93.6 %, 80.1 %, 69.1 %이었음.

〈우리나라 農林水產物 輸入推移, 1980~86〉

單位 : 百萬弗, %

區 分	總輸入 ①	農林水產物		農 產 物		畜 產 物		水 產 物		林 產 物		非 食 用 原 材 料				輸 入 自 由 化 率		
		②	②/①	③	③/②	④	④/②	⑤	⑤/②	⑥	⑥/②	原皮	原棉	천연 고무	羊毛	全體	1次製 食料品 ¹⁾	農林水 產物 ¹⁾
1980	22,292	3,171	10.2	2,195	69.2	41	1.3	34	1.1	901	28.4	315	607	276	142	68.6	—	—
1981	26,131	3,934	12.3	3,055	77.7	113	2.9	56	1.4	710	18.0	395	629	242	187	74.7	68.5	—
1982	24,251	2,653	8.1	1,704	64.2	217	8.2	55	2.1	677	25.5	457	534	183	149	76.6	70.6	—
1983	26,192	2,861	8.4	1,904	66.5	237	8.3	49	1.7	671	23.5	512	547	218	124	80.4	73.2	62.0
1984	30,631	2,837	7.1	1,993	70.3	130	4.6	40	1.4	674	23.7	604	636	254	125	84.8	75.8	64.4
1985	31,136	2,484	6.1	1,770	71.3	44	1.8	79	3.2	591	23.7	607	549	219	191	87.7	78.2	66.2
1986	31,584	2,534	8.1	1,790	70.6	27	1.1	108	4.3	609	24.0	881	460	261	215	91.5	79.7	68.4
1987	—	—	—	—	—	—	—	—	—	—	—	—	—	—	—	93.6	80.1	69.1

1) CCCN 8 단위 기준으로 農林水產부, 산림청, 수산청 관리품목

資料 : 農林水產部, 「農林水產 主要統計」, 1987.

關 稅 廟,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II. 韓·美 農產物 通商日誌 및 主要品目的 美國側 要求事項

1. 通商日誌

日 時	主 要 內 容
1986 年 9 月	담배市場開放
1987 年 1 月	레먼, 쇠고기 등 291 個品目 關稅率 引下要請
"	乾포도 등 24 個品目 關稅率 引下(87. 7. 1 施行)
2 月	對美 農產物 購買사결 단 파견(1 억 2 천 2 백 만달러 구매)
6 月	담배 등 50 個品目 關稅率 引下(87. 7. 1 施行)
10 月	포도주 輸入開放(國內需要의 10 %)
12 月	담배 등 48 個品目 關稅率 引下(88. 1. 1 施行)
"	쇠고기, 담배, 保險開發관련 美國側 要請 관철 안되면 301 條 發動通報
1988 年 1 月	鄭寅用부총리 美側과 協商위해 訪美
"	通商協商 啓程
"	美 담배 3 社 301 條 發動 제소
"	韓·美 제네바에서 쇠고기問題 協商開始

2. 美國側 要求事項

品目	美 國 立 場	品目	美 國 立 場
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時期 : 즉각재개 ○ 販賣對象 : 一般飲食店 포함 (호텔은 물론) ○ 關稅引下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租稅納付方法 : 6 개 稅金을 單一 稅로 統合 ○ 租稅負擔金 水準 : 전국 國產 담배 의 加重平均值 기준 ○ 販賣價格決定方式 : 市場原理에 일임 ○ 流通體系 : 都賣商 및 獨立分配商 許容 ○ 廣告 - 販促活動 : 一般商品 水準의 廣告, 販促허용
고			
기		배	

III. 多者間 農產物 貿易協商

1. 世界農產物市場의 與件變化와 農產物 貿易協商

- 1970 年代의 穀物波動과 超過需要의 현상과는 달리 1980 年代에는 過剩生產, 在庫累積, 價格下落, 貿易量의 減少의 現象을 招來
- 各國은 更多 保護主義의 貿易政策을 強化하여 國際貿易秩序의 교란이 우려됨.
- 이에 對處하여 美國은 ①競爭力 提高를 위한 食糧安定保障法(Food Security Act 1985)을 制定하고, ②달러貨의 平價切下의 努力 ③輸入障壁 緩和, 農產物 輸出補助金 支給의 徹廢를 위하여 多者間 貿易協商을 提示함.
- 이에 따라 1986年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GATT의 會員國 閣僚들이 署名 同意함으로써 UR이 形成되었고, 農業, 서비스 산업, 投資, 知的 所有權 保護問題를 議題에 包含시켜 強調함.
- 특히 農產物 貿易障壁에 關聯된 GATT條項들은 구속력이 없는 경 우가 많고 例外條項이 適用되기 때문에 農產物 貿易紛爭을 쉽게 解決하기 어려운 點이 있어 이에 대한 調整과 協商이 이루어질 것으로 期待
- 그러나 農產物과 關聯된 多者間貿易協商(MTN)은 다음과 같은 난관이 存在함.
 - (1) 農產物貿易障壁은 國內農業 및 價格政策과 密接한 聯關性을 가지고 있는바, 他國의 國內政策에 言及할 수 있는 立場이 못됨.
 - (2) 農產物貿易에 影響을 주는 直接所得補助, 生產要素에 대한 支援, 流通, 輸送에 대한 補助는 貿易障壁이라고는 볼 수 없음.
 - (3) GATT의 會員國들은 매우 相異한 農業政策을 遂行하고 있어 共通點과 解決策을 찾기가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은 다음과 같은 共通의 協商目標를 설정하고 있음.
 - (1) 輸入障壁의 緩和와 除去를 통한 市場接近의 容易性 提高
 - (2) 農產物貿易에 影響을 주는 直間接의 補助金 및 貿易障壁의 緩和
 - (3) 衛生／保健規定을 통한 貿易障碍要因의 최소화
- 農產物 貿易協商에 임하고 있는 各國의 立場은 매우 相異한데 主要 農產物 輸出國家인 美國,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頑固적인 자세이고, 農產物 輸入國家인 EC와 日本 및 開發途上國들은 소극적인 立場임.
- 具體的으로는

美國：農產物 輸入制限措置의 제거와 農산물 輸出補助金을 工業製品의 보조금과 同一한 處理, 保健 衛生規定의 최소화를 主張, 價格支持 보다는 所得補助政策을 主張

EC : 比較優位와 國際競爭力과는 상관없이 각 輸出國의 生產, 輸出量을 설정, 統制하여 市場占有 rate을 確定하고자 함.

日本：國內 農業이 갖는 政治的 要因들로 인하여 MTN에 매우 소극적인 立場임.

카나다：美國, EC의 輸出補助金支給에 反對

호주：美國, EC의 輸出補助金 支給이나 輸入國의 제한에 反對하며 특히 14개 輸出補助金 非支給國家들의 모임을 주재하였으며, 雙務協商보다는 多者間 協商을 선호

개발도상국(LDC's)

LDC's는 세계 農產物 需要와 供給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점차擴大되어 協商參與의 要求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전까지만 해도 LDC's에게는 貿易收支不均衡, 幼稚產業의 保護 등을 考慮하여 판대하게 다루어 졌으나 사정이 매우 달라짐.

2. 各國의 貿易障壁과 農業介入의 程度에 관한 計量的인 資料

- 農業 및 農產物 貿易에 개입하는 政策은 國家間 또는 品目別로 相異하고, 複雜다단하기 때문에 MTN에 임하는 會員國 모두가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客觀的인 政策介入 尺度가 도출되어야만 협상이 容易해질 것임.
- 이와 같은 目的으로 USDA ERS에서는 Josling의 모델을 變形하여 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와 CSE(Consumer Subsidy Equivalent)概念을 도입, 計量化하여 國家間 또는 品目別로 상호 比較함. 여기에서 PSE(CSE)란 生產者(消費者)補助相當額으로서 政府가 農業 및 農產物貿易과 市場에 介入하지 않았을 경우, 介入하였을 경우와 比較하여 生產者(消費者)가 損失을 입게되는相當額을 뜻함. 그러나 實際的으로는 PSE(CSE)는 生產者(消費者)의 總所得(總支出)中에서 政府介入(價格支持, 輸入制限, 輸入賦課金, 生產投入財補助 등)에 의한 追加所得(支出)의 比率을 뜻함.
- 그러나 USDA ERS에서 計算한 PSE는 農產物貿易理論에서 흔히 引用되는 名目保護率과 類似한 概念임을 유의해야 함.
- 위에서와 같이 計算된 PSE(CSE)의 國家別, 商品別 比較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 農產物 輸出國家는 輸入國家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生產者補助가 낮은 편임.
 - (2)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 食用穀物, 酪農製品, 설탕은 돼지고기, 가금산업보다 높은 補助를 받고 있음.
 - (3) 대부분의 경우 높은 生產者補助는 높은 消費者價格으로 補填되고 消費者가 損失을 입고 있음. 그러나 小麥과 酪農品은 政府의 補助로 生產者補助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注目됨.
 - (4) 開發途上國에서는 生產者補助가 아닌 生產者에게 오히려 損失을 가져오는 政策介入이 많음.

- (5)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日本은 가장 國內農業을 保護하고 있으며, 韓國은 日本보다는 保護率이 낮은 편이나 臺灣보다는 높은 편임.

3. UR에서의 韓國側의 立場과 考慮事項

- 현재 세계 農產物市場에서 만연되고 있는 過剩生產, 在庫累積, 保護貿易 問題의 근원은 거의 예외가 없는 세계 각국의 農業保護 및 높은 生產者 價格支持政策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輸入國에 있어서의 輸入障壁 緩和 措置와 더불어 農產物 輸出國家에서도 政府의介入이 점차 철회되어 市場機能에 의하여 調整되는 農業으로의 전환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임.
- USDA에서 計算된 PSE係數는 政府의 市場介入에 의한 純粹效果로만 볼 수 없는 맹점이 있음. 政府介入이 전혀 없을 경우라도 國內生産費用이 높고, 國內의 商品이 同質的인 것이 아니고 높은 價格에서도 國內에서 生産된 商品에 대한 需要가 存在한다면 名目保護率 또는 PSE는 正의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 韓國의 小麥과 옥수수 등은 PSE가 0.50 이상으로 分類되고 있으나 農產物 輸出國家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PSE의 高低가 문제가 아니라 自給率의 정도가 더욱 중요함. 韓國의 小麥의 경우 PSE가 높다고는 하나 自給率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설령 輸入自由化가 더促進된다고 하더라도 輸入量의 增加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임.
- 國家別, 品目別 PSE의 상호比較 결과를 보면 韓國의 경우는 PSE가 절대적으로 높을지라도 日本보다는 낮은 편이며 더욱이 自由經濟가 經濟運用의 基本目標인 美國의 PSE보다 결코 相對的으로 높은 편이 아님.
- 美國의 일관된 주장인 價格支持政策의 철회와 所得補助政策의 도입은 상당한 國內 賦存資源의 유휴를 가져와 韓國의 農業補助政策費用을 결과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IV. 主要市場開放 要請品目의 國內現況

1. 쇠고기

가. 飼育動向

〈韓牛飼育動向〉

단위 : 千頭

區 分		1983	1984	1985 (A)	1986 (B)	1987.9 (C)	C/A (%)	C/B (%)
飼育家口數(千戶)		971	1,037	1,048	991	888	84.7	86.6
總頭數	암	1,412	1,664	1,775	1,575	1,415	79.7	89.8
	수	528	654	779	795	720	92.4	90.6
	계(D)	1,940	2,318	2,553	2,370	2,135	83.6	90.1
송아지 (1세미만)	암	283	354	321	419	381	118.7	114.8
	수	257	330	476	512	481	101.1	93.9
	계(E)	540	684	897	931	862	96.1	92.6
큰 소 (1세이상)	암	1,129	1,310	1,353	1,156	1,034	76.4	89.4
	수	270	324	302	283	239	79.1	84.5
	계	1,399	1,634	1,655	1,439	1,273	76.9	88.5
(E / D, %)		27.8	29.5	35.1	19.3	40.4	-	-

資料：農林水產部

- 1987年 9月末 總 소 飼育頭數 : 256 萬頭
 - 이중 韓牛 : 214 萬頭(83%), 疊소 : 42 萬頭(17%)
- 1987年 韓牛飼育頭數는 1985年末, 1986年末 對比 각각 16.4%, 9.9%씩 減少
- 1987年 9月末 飼育家口數는 約 90 萬戶로서 1985年末, 1986年末 對比 각각 15.3%, 10.4%씩 減少

나. 韓牛飼育規模別 農家 吻 頭數分布

〈韓(肉)牛 飼育規模別 農家 吻 頭數分布(1987 6 現在)〉

區 分	全 體	5 頭 미만	5 ~ 19	20 ~ 49	50頭以上
飼 育	923,728	852,480	65,681	4,228	1,339
農 家	(100.0 %)	(92.3 %)	(7.1 %)	(0.5 %)	(0.1 %)
頭 數	2,148,693	1,384,691	514,367	124,022	125,613

註 : ()內는 전체에 대한 比率임.

資料：農林水產部，「家畜統計 調查結果」，1987. 6.

- 5 마리 미만 飼育農家の 數가 90 %인 반면 그들의 飼育頭數 比重은 65 %미만으로서 大部分의 農家가 適正規模(10頭內外)以下의 零細性을 띠고 있음

다. 우리나라 쇠고기 生產 및 消費動向

單位 : %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當年生產	93,250	69,226	61,390	66,089	90,803	116,859	151,182	147,100
當年輸入	-	24,716	41,508	50,192	23,995	-	-	-
消 費	99,974	93,202	106,506	115,497	106,581	122,342	147,934	152,800

註：1986 年은 留정치, 1987 年은 計劃值임.

資料：農林水產部

- 우리나라 쇠고기 生產 및 消費는 1980 / 81 年 對比 1986 / 87 年 각각 80 %, 60 % 增加하였음.

라. 韓牛 및 쇠고기 價格動向

〈產地價格 및 쇠고기 價格 動向〉

區 分	큰 소 (千 원)				송아지 (千원)		枝肉價格 (원 / kg) *	
	400 kg		250 kg		3 개 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1983	1,664	1,520	1,332	1,186	1,000	909	5,927	
1984	1,326	1,431	978	975	650	651	5,723	
1985(A)	973	1,105	598	672	355	444	4,384	
1986(B)	827	995	491	608	224	376	3,875	
1987. 1	747	926	437	557	201	367	3,282	
2	778	920	456	583	225	393	3,330	
3	854	934	478	604	247	416	3,647	
4	909	1,065	547	676	310	475	4,256	
5	937	1,097	574	708	329	495	4,294	
6	904	1,067	568	717	328	505	4,178	
7	875	1,046	566	718	316	501	4,072	
8	859	1,039	545	711	296	485	3,951	
9	861	1,032	539	694	286	478	4,003	
10	859	1,025	543	703	287	484	3,966	
11(C)	862	1,008	539	690	287	481	3,895	
C / A	88.6	91.2	90.1	102.7	80.8	108.3	88.8	
C / B	104.2	101.3	109.8	113.5	128.1	127.9	100.5	

註 : 서울 3 개도매시장 경락가격

資料 : 畜協中央會

- 큰소, 송아지, 枝肉價格 모두 1983 年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986 年末에는 最低價格을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점차 回復勢를 보였으나 1987 年 7 月부터는 다시 下落勢임.

마. 農家의 養畜收入 比重

〈農業粗收入中 養畜收入 比較〉

單位 : 千원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農業粗收入(A)	2,342	3,269	3,998	4,702	5,277	5,477	5,619
養畜收入(B)	284	530	863	1,193	1,023	932	991
B/A (%)	12.1	16.2	21.6	25.4	19.4	17.0	17.6

資料 : 農林水產部

- 1983年以後 소값下落과 飼育農家數의 減少로 農家의 養畜收入比重은 17%로 下落

마. 猪 輸入動向

〈쇠고기 輸入 實績(精肉基準)〉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總 輸 入					
物 量 (%)	1,910	25,291	51,045	48,568	19,819
金 額(千 \$)	7,068	77,100	148,071	145,102	61,142
國別輸入物量 (%)					
호 주	1,497	24,416	49,974	44,572	17,249
(78 %)	(96.5 %)	(97.9 %)	(92 %)	(87.0 %)	
미 국	300	446	657	693	1,073
(16 %)	(1.8 %)	(1.3 %)	(1.0 %)	(5.4 %)	
기 타	113	429	414	3,303	1,497
(6 %)	(1.7 %)	(0.8 %)	(7.0 %)	(7.6 %)	
觀光호텔용 쇠고기					
輸 入 實 績					
物 量 (%)	383	600	820	1,323	2,424
金 額(千 \$)	2,535	3,166	4,107	5,777	9,077

* ()내는 各國의 市場占有率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國內 소값 下落으로 1985年부터 需給調節用 쇠고기 輸入中斷
- 觀光호텔용 쇠고기에 대해서도 1985年 下半期부터 輸入을 中斷 시켰음.
- 특히 지난 1982, 1983年에는 輸入量이 急增하여 國내 소 및 쇠고기 價格下落 要因
- 輸入先別 輸入은 1980 ~ 1985年 平均 호주 93%, 美國이 3% 이었음.

사. 쇠고기 國內外 價格趨勢 (枝肉基準)

〈쇠고기 國內外 價格 比較(枝肉基準)〉

單位 : 원/kg, (\$)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輸 入 價 格 (c.i.f)	평 균 (A)	2,758 (4.18)	1,520 (2.17)	1,513 (2.02)	1,671 (2.10)	1,721 (2.80)	2,315 (2.60)
	호 주 (B)	2,191 (3.32)	1,506 (2.15)	1,505 (2.01)	1,631 (2.05)	1,688 (2.04)	1,941 (2.18)
	미 국	6,124 (9.28)	5,015 (7.16)	4,725 (6.31)	2,975 (3.74)	2,821 (3.41)	2,751 (3.09)
	뉴질랜드	-	3,622 (5.17)	1,767 (2.36)	1,973 (2.48)	2,441 (2.95)	1,896 (2.13)
	스 웨덴	-	-	1,398 (1.86)	1,559 (1.96)	1,440 (1.74)	1,638 (1.84)
都 賣 價 格 (C)		3,557	4,834	5,437	5,927	5,723	4,384
價 格 比	C / A	1.29	3.18	3.59	3.55	3.33	1.89
	C / B (호주산)	1.62	3.21	3.61	3.63	3.39	2.26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의 물량, 집계 파으로 쇠고기 수입계약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畜協中央會, 畜產物價格 및 수급자료, 1984). 원貨환산은 韓銀集中基準率 적용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畜協中央會, 畜產物價格 및 수급자료 (도매가격, 1980~86)

농협조사월보 (도매가격, 1987. 10)

- 國內外 쇠고기 價格比率은 1981 ~ 1984 年間 3倍이상 높은 水準 이었으나 그후 1985 年에는 國內價格의 下落으로, 1987 年에는 換率引下로 相對價格比率이 減少 및 增加함.

아. 觀光호텔用 쇠고기 輸入

- 輸入要領 : 交通部長官이 農林水產部長官과 協議후 輸入推薦하여 觀光用品센타에서 輸入
- 1980年 以後 輸入量이 계속 增加하여 1984年度에는 最高 2,424 百
(14千頭분) 輸入
 - ('80年) 383 百 → ('82年) 820 百 → ('84年) 2,424 百
 - 그러나 國內 소값 下落과 國內市場 流出로 인한 社會的인 물의 야기 → 1985年 下半期 이후 輸入中斷 措置
 - 輸入先別 輸入比重 : 美國 65%, 호주 15%, 뉴질랜드 15%, 其他 5%

〈관광호텔용 쇠고기 輸入實績〉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물 량(百) (生體 400 kg/ 頭 환산, 頭)	383 (2,279)	600 (3,571)	820 (4,880)	1,323 (7,875)	2,424 (14,429)	1,313 (7,815)	-	-
金額(千\$)	2,535	3,166	4,107	5,777	9,077	5,658	-	-
단 가(\$/百)	6,619	5,277	5,009	4,367	3,745	4,309	-	-

資料 : 農林水產部

- 관광호텔用 쇠고기의 國內市場 流出로 인한 社會的인 물의 야기事例
 - 1984年 內國人 嗜好品인 갈비, 꼬리, 혀 등을 大量輸入 ('84年 全體輸入額의 46%에 해당되는 양)하여 國내市場 流出
 - 관광호텔에서 內國人을 相對로 값싼 輸入肉 調理販賣
 - 1984年 관광호텔利用者의 76%가 內國人

- 美國은 관광호텔을 美軍P.X 와 더불어 主要輸出市場의 하나로
看做 → 內國人에 대한 高價農產物의 宣傳效果

2. 담배

가. 葉煙草 國內生產動向

區 分	栽培面積 (ha)	生 產 量 (千公噸)	栽培農家 (千戶)	生 產 額 (십億원)	農產物生產額 에 대한 比重
1980	45,511	93	148	149	2.3 %
1984	38,819	94	119	196	1.7
1985	36,440	76	103	180	1.5
1986	34,465	83	92	197	1.6

資料：葉煙草生產組合聯合會，葉煙草

農林水產部，農林水產統計年報

- 1980 年 以後 葉煙草 輸出不振에 따른 栽培面積 割當縮小로 栽培農家 및 生產量 계속 감소추세
- 葉煙草 栽培農家는 9 만 2 천戶로서 全體農家의 4.8 %

나. 葉煙草 및 담배 輸出入 動向

輸出動向

〈葉煙草 및 담배 輸出實績〉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10
葉煙草	物 量(公噸)	33,648	38,333	31,476	32,100	29,960	28,887	25,641
	金 額(千 \$)	83,978	101,814	105,046	105,605	100,354	91,432	75,046
담 배	物 量(百萬本)	736	327	1,007	1,163	542	402	236
	金 額(千 \$)	3,449	5,383	10,015	11,335	8,833	6,588	3,494
合 計	金 額(千 \$)	87,427	107,197	115,061	116,940	109,187	98,020	57,461

資料： 관세청，「貿易統計年報」，各年度。

- 葉煙草 및 담배의 輸出은 1983년까지 계속 增加하였으나 1984年以後 減少趨勢
- 葉煙草의 國內生產中 輸出比重은 1984년과 1986년 각각 33%, 30%임.
- 種類別 輸出比重은 1986년의 경우 價額基準 葉煙草 95.6%, 담배 4.4%임.
- 輸出市場

葉煙草：서독, 영국,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等地로 수출
 담 배：中東地域 勤勞者用으로 수출되었으나 中東建設景氣 퇴조
 로 수출이 크게 감소추세임.

輸入動向

〈葉煙草 및 담배 輸入實績〉

區 分	1980		1983		1986		1987. 10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葉 煙 草 (千噸, 百萬 원)	總 計	14	78	4	17	4	14	1.3
	美 國 (%)	6 (43)	48 (62)	-	-	-	0.4 (31)	1.3 (86)
담 배 (百萬本, 百萬 \$)	總 計 (107 만갑)	21 (107 만갑)	0.07 (176 만갑)	35 (176 만갑)	0.6 (221 만갑)	44 (221 만갑)	0.8 (830 만갑)	166 (830 만갑)
	美 國 (%)	10 (48)	0.05 (71)	25 (71)	0.4 (67)	39 (89)	0.7 (88)	111 (67)

資料：관세청,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葉煙草는 필터담배 製造의 配合原料로 輸入하고 있으나 最近 輸入이 급격히 減少
- 담배는 그동안 外國人 관광용으로만 少量 輸入하였으나 美國의 輸入開放要請에 따라 1986年 9月부터 輸入이 크게 증가하여 1980년의 7萬弗에서 1987년(10月까지) 300萬弗에 達함.

다. 現行 양담배 販賣價格

〈流通段階別 양담배 去來價格(推定)〉

單位 : 갑당

區 分	內 譯	累 計	
		關稅 100 %	關稅 50 %
輸入價格	CIF 價格	290 원	290 원
關 稅	輸入價格의 100 %, 50 %(290원, 145원)	580 원	435 원
防 衛 稅	수입가의 2.5 % (7원, 7원)	587 원	442 원
附加價值稅	(수입가+관세)의 10 % (58원, 44원)	645 원	486 원
教 育 稅	매도가의 10 % (124원, 93원)	769 원	579 원
專賣納付金	매도가의 38 % (471원, 354원)	1,240 원 (매도가격)	934 원
小賣店마진	60 원	1,300 원 (소비자가격)	994 원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財務部, 專賣企劃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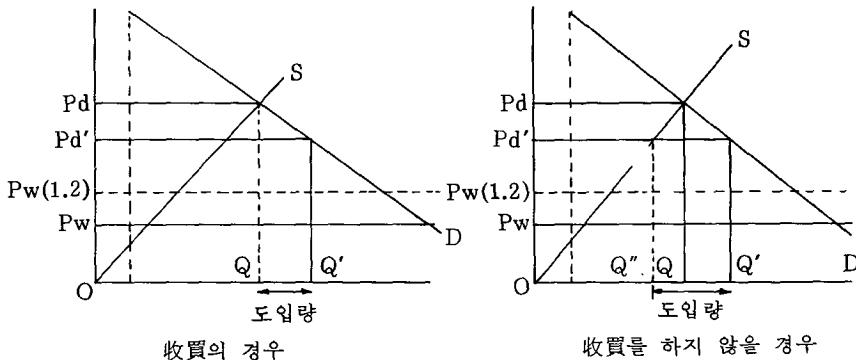
- 양담배의 갑당 最終消費價格 1,300 원은 輸入價格 290 원의 4.5 倍임 (1986 年 7 월 日本 및 臺灣의 양담배 國內販賣價格은 각각 1,550 원, 1,330 원이었음).

V. 主要品目의 輸入開放에 의한 經濟的 波及效果

1. 쇠고기

- 관광호텔用 쇠고기 需要量은 1987 년의 경우 2,361 %이었음.
- 向後 관광호텔用 쇠고기 需要量은 價格策定水準에 따라 變動할 것이지만 그동안의 호텔數의 增加로(총 160 개 : 서울 57 개) 3,000 %내지 4,000 %를 輸入하였을 경우(일종의 Quota) 의 經濟効果를 測定코자 함.

- 쇠고기 輸入時 政府가 既存 國內生產物量을 계속하여 같은 價格 으로 收買할 경우와 收買를 포기할 경우로 區分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설명됨.



輸入量 : 현재 國內總消費의 2~2.5% (630 만불~840 만불)

현재 國內總消費의 2~2.5% (630 만불~840 만불)

國內消費價格下落 ($P_d \rightarrow P_d'$) 2~2.5% 1.3 ~ 1.7 %

國內消費增加 : 2~2.5% 1.3 ~ 1.7 %

國內生產減少 : 0 0.7 ~ 0.9 %

收買費用 $OQ(P_d \rightarrow P_d')$: $(6,396 - 6,268) \times 0$

$$150,000,000 = 192 \text{ 억원}$$

$$(6,396 - 6,236) \times 0$$

$$150,000,000 = 240 \text{ 억원}$$

關稅收入 $QQ'P_w \times 0.2$ 15 ~ 20 억원

$$3,000,000 \times 2,940 \times 0.2 = 18 \text{ 억원}$$

$$4,000,000 \times 2,940 \times 0.2 = 24 \text{ 억원}$$

輸入業者收益 ($P_d' - 1.2 P_w$) QQ' 50 ~ 65 억원

$$(6,268 - 3,528) \times 3,000,000 = 81 \text{ 억원}$$

$$(6,236 - 3,528) \times 4,000,000 = 108 \text{ 억원}$$

財政赤字 : 174 억원 ~ 216 억원 0

國內農民所得損失 0 2% ~ 2.6% → 117 억 ~ 152 억 원

$$\begin{aligned} & 150,000,000 \times 6,396(1 - 0.987 \times 0.993) \\ & = 191 \\ & 150,000,000 \times 6,396(1 - 0.983 \times 0.991) \\ & = 248 \end{aligned}$$

飼料輸入減少 190 ~ 260 만불 190 ~ 260 만불

(쇠고기 枝肉 1% 生產에 옥수수 7,196 kg 소요 옥수수 CIF 가격 90 \$)

2. 담배

- 양담배가격이 800 원으로 조정될 경우 양담배의 國內市場 占有率은 5%(정부), 또는 15%(전매공사)가 될 것으로 추정.
- 美國側의 주장은 한국의 담배시장이 完全開放되고 價格이 700 원 수준으로 引下되면 양담배의 市場占有率은 25%가 될 것이라고 주장
- 양담배 市場占有率이 1%씩 증가함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는
 - ① 4,000 만갑의 양담배수입 → 4,480 만불(갑당 CIF 가격 ₩ 37)
 - ② 國內收買는 0.7%감소 → 1986년 기준으로 14億원(농가호당 15,000 원손실) (國內生產중 수출이 약 30%內外)
 - ③ 양담배가 솔담배와 대체되었을 때 財政收入의 增加 →

{ 양담배국내시판가격이 800 일 경우 재정납부금 450 원/갑 } → { 40 億
 { 양담배국내시판가격이 700 일 경우 재정납부금 350 원/갑 } 0

○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는

區 分	양담배市場占有率	5 %	15 %	25 %
輸 入				
物 量 (萬갑)	20,000	60,000	100,000	
金 額 (萬불)	7,400	22,200	37,000	
國內收買減少	3.5 %	10.5 %	17.5 %	
農 家 被 害				
全 體 (억원)	69	207	345	
戶 當 (원)	75,000	225,000	375,000	
財政收入增加				
양담배가격 800 원 일 때	200 억원	600 억원	1,000 억원	
양담배가격 700 원 일 때	0	0	0	

VI. 農產物 輸入開放에 대한 長短期 對應方案

1. 短期 對應方案

가. 效率的인 貿易協商

- 農水產分野에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을 가진 사람이 일관성을 가지고 協商에 임해야 할 것이며, 強力한 通商專擔機構의 新設
- 相對方의 非效果的이고, 無理한 주장을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설득, 그例로서,
 - (1) 美國이 主張하는 양담배 市販價格 700 ~ 800 원은 美國의 市販價格 1.50 ~ 1.60 \$, 英國 1,600 원, 西獨 1,400 원, 濟洲 1,100 원 수준보다 훨씬 낮은 價格으로서 일종의 덤핑행위와 다름없으며, 公正貿易慣行에 어긋나는 점
 - (2) 韓國의 쇠고기 輸入開放을 위한 美國政府의 GATT제소 決定은 韓國이 敗訴할 경우 모든 國家에 輸入을開放해야 하며, 그럴 경우 美國의 實益은 전무한 점.
 - (3) 쇠고기 輸入開放의 경우 그에 따른 飼料穀物 輸入이 減少한다는 점(쇠고기 3,000 % : 630 만불의 輸出은 飼料穀物 輸出이 190 만불이 減少하여 결과적으로 440 만불의 純農產物 輸出임).
- 農產物은 물론 非農產物 輸入은 輸入決定에 따른 補償費用 등 政策費用을 수반하는데 對外的인 통상마찰, 對內的인 政策費用을 동시에 신중히 고려(trading-off)하여 輸入開放의 對象品目을 決定
- 穀物輸入國家로서의(韓國은 美國農產物의 第5位 輸入國) 購買獨占力を 최대한 발휘하고, 美國內 로비스트를 效果的으로 利用함.

2. 被害農家에 대한 補償政策

1) 價格支持政策

- 쇠고기 輸入에 따른 소값 下落을 防止하기 위하여 開放時點時勢(400 kg : 108 萬원)로 無制限 收買
- 收買에 의한 價格支持에 소요되는 財政資金은 관광호텔用 쇠고기만 輸入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192 ~ 240 억원임.
- 이에 반하여 쇠고기 輸入에 의한 收益金(關稅收入에 해당)은 관광호텔용만을 輸入할 경우 18 ~ 24 억원임.
- 政府에 의하면 畜産振興基金에서 우선 500 억원을 확보하여 소收買資金으로 사용할 計劃임.
- 앞담배 收買量을 현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담배 輸出을 적극 推進함이 필요하나 수출앞담배는 1 ~ 2 등 高級으로서 輸出價格이 收買가격보다 낮아 赤字輸出이 불가피하고 在庫量이 累積되고 있는 실정임.

2) 間接補助政策

- 옥수수, 柏類, 魚粉 등 輸入飼料穀物을 原資材로 하는 配合飼料에 대한 附加稅 및 榨乳機, 牛乳冷却機 그리고 農機器자재에 대한 關稅(현재 7 ~ 25 %), 附加稅 등의 免除.
→ 1,020 억원의 負擔 경감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國內穀物價格이 下落하여 農民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草地造成에 대한 財政支援
- 農水畜協 對 農民相互金融 貸出金利를 年 14.5 %에서 10 %로 市中金利(11.5 %) 以下로 引下함(관계부처長官회의, 88. 1月)
- 畜産資金 2,000 억원을 영세농 支援水準인 연리 3 %, 10年 상환조건으로 新規支援(부총리에 대한 農民 전의, 88年 1月 23日).
- 앞담배 耕作農家가 他農作物로 耕作轉換時 所要 農資金 全額을 低利로 응자

〈葉煙草 等級別 收買價格 및 在庫量과 輸出價格〉

單位 : 원 / kg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 등	황색종	2,500	2,870	3,010	3,010	3,020	3,445	3,585	3,935
	버어리종	1,680	1,920	2,110	2,110	2,120	2,240	2,360	2,750
2 등	황색종	2,220	2,550	2,670	2,670	2,720	3,125	3,265	3,585
	버어리종	1,460	1,700	1,870	1,870	1,900	2,010	2,130	2,480
3 등	황색종	1,830	2,070	2,170	2,170	2,220	2,595	2,705	2,970
	버어리종	1,240	1,430	1,580	1,580	1,620	1,720	1,830	2,130
4 등	황색종	1,150	1,390	1,540	1,540	1,570	1,855	1,945	2,130
	버어리종	820	980	1,120	1,120	1,150	1,230	1,310	1,520
5 등	황색종	740	850	940	940	940	1,010	1,055	1,155
	버어리종	490	560	650	650	650	650	680	800
6 등	황색종	400	-	-	-	-	-	-	-
	버어리종	300	-	-	-	-	-	-	-
등 외	황색종	-	150	150	150	100	100	110	110
	버어리종	-	150	150	150	100	100	110	110
輸出價格	\$ / kg	2,496	2,656	3,337	3,290	3,350	3,165	2,927	
	원 / kg	1,646	1,861	2,499	2,617	2,772	2,817	2,521	
在庫量 (%)		149,625	153,223	153,052	147,375	151,963			

註 : 輸出價格은 FOB價格을 換率로 計算한 것임.

1985 ~ 87 黃色種은 平均價格임.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專賣公社, 「專賣統計年報」, 各年度.

3) 所得移轉政策

- 對美輸出로 혜택을 보게 되는 自動車, 전자 등 大企業으로 하여금 一定額을 畜產振興基金에 出捐할 수 있는 制度의인 接近方法을 摸索.

가. 輸入制度의 改善

- 農산물의 輸入은 農民의 利益을 대변할 수 있는 機關에서 一括的으로 輸入하여 輸入開放에 따른 農民피해를 最小化 해야 함(쇠고기 輸入을 관광호텔用品센터에서 주관하는 문제).

- 品質規定과 檢疫強化 등 非關稅障壁에 의한 輸入規制는 美國의 目的이 韓國市場 開放의 擴大에 있는 만큼, 開放을 하 고, 國內規制를 通해 輸入物量을 技術的으로 調節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展望.

나. 中長期 對應方案

1) 流通 및 經營合理化

- 農產物의 國際競爭力(수입대抗能力)은 生產過程도 중요하지만 流通 및 經營合理化에 의하여 크게 提高될 수 있음.
- 쇠고기의 경우 小賣價格中 소매마진율은 13%(1987년도의 경우 枝肉都賣價格 3,904 원/kg, 枝肉小賣價格 4,477 원/kg)이며, 총 유통마진율은 20% 이상인데 流通過程上의 不公正去來에 의한 非效率을 감안하면 상당부분이 流通構造에 의한 價格競爭力 상실이 초래되고 있음.
- 담배의 경우는 專賣事業으로 인한 經營의 硬直性, 非效率이 상당히 크리라 봄.
- 國產 담배 品質改善 및 費用節減을 위해서는 專賣公社의 老朽施設을 대체하고 先進 담배製造技術 導入, 담배 배송회사의 별도設立 등을 통한 經營合理化가 要請됨.
- 쇠고기, 담배 공히 商品을 多樣化, 高級化하여 非價格競爭力 向上에 注力해야 함(쇠고기 等級部位別 販賣制度 確立 및 담배의 商品 다양화).

2) 農產物 逆輸出 推進

- 쇠고기, 담배 등 中長期的으로 生產效率性이 提高되고, 品質의 高級化, 多樣化가 이루어지면 日本 및 東南亞 등지로 輸出.

다. 長期 對應方案

- 農業의 目標 設定 및 農業構造 調整.

- 完全開放品目的 선택, 非開放品目の 開放化率(自給度) 決定,
開放品目的 豫示.
- 農業生産性 向上을 위한 對策.

主題發表

農產物 輸入開放 現況과 對策

金漢坤
農林水產部 農政局長

I. 國際農產物 交易環境의 變化

1. 世界經濟의 흐름

< 1930 ~ 50 年代 >

- 1930 年代 美國의 大恐慌을 契機로 各國의 保護主義 蔓延
- 世界的인 貿易紛糾, 市場爭奪戰 加速화로 2 次大戰 勃發
- 終戰後 世界交易擴大量 指向, GATT 設立
- 援助 經濟體制에서 先・後進國間 經濟發展 隔差 深化

< 1960 年代 >

- Dillon Round, Kennedy Round 등을 通한 貿易障壁 緩和
- 保護主義가 緩和되면서 安定된 成長과 物價水準 維持
- 美國의 壓倒的인 經濟力이 世界經濟을 主導

< 1970 年代 >

- 2 次에 결친 石油波動으로 世界景氣 및 交易沈滯
- 世界經濟의 秩序가 美國, EC, 日本으로 3 極化
- 世界食糧危機 以後 食糧武器化에 對備한 各國의 食糧增產施策 推進

〈1980年代〉

- 國內失業, 國際收支防禦를 위한 輸入規制措置 強化
- 新多者間 貿易協商 擡頭와 Uruguay Round 協商開始
- 農產物 在庫累積에 따른 貿易自由化 慾求高潮 · 擴散

2. GATT의 原則과 農產物에 대한例外

—GATT와 EC共同農業政策(CAP)과의 關係—

GATT의 原則과例外

- 一般的 最惠國 待優의 原則 : 第 1 條
 - 例外 : 一定한 要件을 具備하면 各國은 自由貿易地域이나 共同市場 같은 地域同盟을 맺을 수 있음 (24 條).
- 輸出入 數量制限의 一般的廢止 : 第 11 條
 - 例外 : 農產物에 대해서는 一定한 條件下에 輸出入制限 許容
- 輸出入 補助金 使用廢止 : 第 16 條
 - 例外 : 一定한 條件下에 1次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支給 認定
- 其他
 - 人間, 動物 또는 植物의 生命 또는 健康保護를 위한 措置는 GATT 適用排除 (第 20 條)
 - 開途國에 대해서는 農產物 輸出의 重要性과 特殊性을 考慮 (第 36~37 條)

GATT도 事實上 EC의 共同農業政策을 지금까지 認定

3. 1980年代 뉴라운드의 擡頭(Uruguay Round)

가. 擡頭背景

〈새로운 保護主義 深化〉

- 自國의 保護貿易體制를 強化해 나가면서 相對方에게는 市場開放要請으로 貿易摩擦 蒼起
- 國內 斜陽產業 保護를 위하여 GATT 規定(關稅, 數量制限)範圍 以外의 貿易制限措置 增加 : 所謂 灰色地帶(Grey Area)

- 輸出自律規則(VER:Voluntary Export Restraint)
- 市場秩序維持協定(OMA: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美國의 位置 및 立場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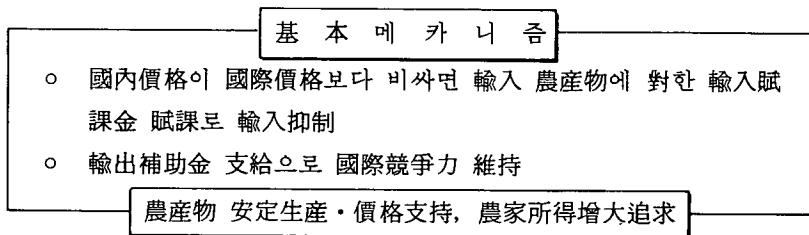
- 貿易赤字의 繼續的인 擴大 : 國內失業 增加
 - ('80) 216 → ('85) 1,548 → ('86) 1,807 億弗
- 傳統的인 比較優位部門(商品)이 서비스, 知的所有權 등으로 移動
- GATT規定 再編으로 農產物 交易自由化와 市場回復을 위한 努力 強化

나. 農產物 協商에 있어서 各國의 立場

- 美國, 캐나다 등 農產物 輸出國
 - 市場機能에 의한 農產物 貿易의 完全自由化 指向
 - 特히 美國은 일체의 補助金과 輸入障壁의 完全撤廢 主張
- EC, 日本 등 農業保護國
 - 農產物 貿易規制의 大部分이 各國의 國內政策目標 追求上 不可避한 것인만큼 各國의 國內政治, 經濟事情上 自由화의 限界가 있다는 立場
 - 國內政策, 農業의 特殊性, 食糧安保 등 考慮 漸進的 開放 主張
- 我國의 立場
 - 農業就業人口 過多('86. 22.7 %) 耕地面積 狹小 및 農家所得 중 農業所得 比重 過大 등 農業의 構造的 脆弱性 때문에 農家所得 保護 및 農業生產基盤 擴充 次元에서 農產物 輸入自由化는 漸進的으로 慎重히 推進하여야 할 것인 바,
 - UR 協商에서도 我國의 이와 같은 國內 特殊事情이 充分히 考慮될 수 있도록 對處해 나갈 것임.

II. 農產物 貿易紛爭의 原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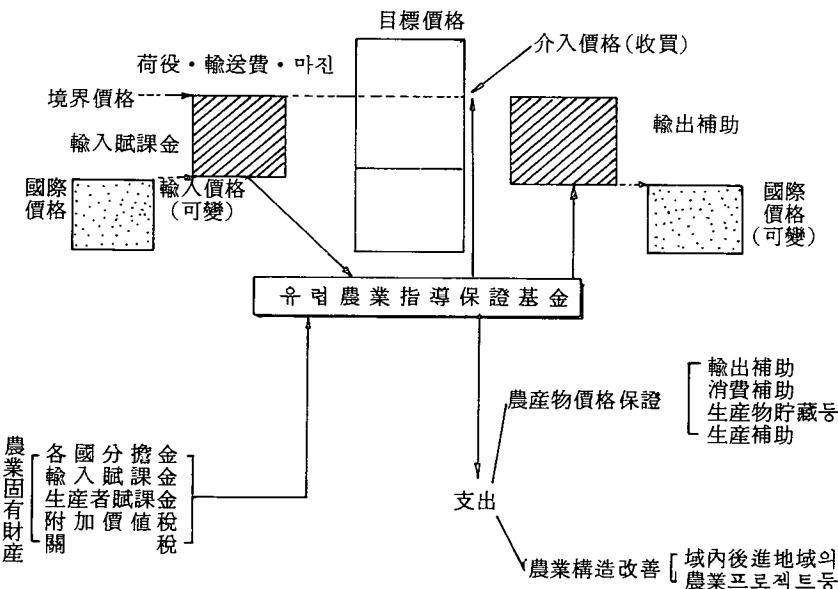
1. EC의 共同農業政策 (Common Agricultural Policy)



〈副 作 用〉

- 財政負擔의 增加
 - 在庫農產物 累積
 - 各國으로부터의 非難
- } 共同農業政策을 再考해야 할
段階(轉換摸索)

〈EC共同農業政策의 概念図〉



〈유럽 農業指導保證基金 運營規模〉

單位：百萬ECU

	輸出補助, 價格支持 (保證部門)	構造改善, 加工支援 (指導部門)	計
1975	4,523	184	4,707
1976	5,587	218	5,805
1977	6,830	297	7,127
1978	8,673	324	8,997
1979	10,441	403	10,844
1980	11,315	603	11,918
1981	11,141	580	11,721
1982	12,406	654	13,060
1983	15,969	665	16,634

註：ECU:European Currency Unit (유럽通貨單位)

IECU: \$ 0.91 ('83/'84) : \$ 0.86 ('84/'85)

2. 美國의 立場

〈國際市場에서의 比重變化〉

- 世界農產物市場에서 차지하는 美國의 比重
 - (1969~'71) 23 → (1979~'81) 39 %
- 1981 美國의 農產物 交易量
 - 輸 出 : 433 億弗] 收支 : 265 億弗
 - 輸 入 : 168 億弗]
- 1986 美國의 農產物 交易量
 - 輸 出 : 270 億弗] 收支 : 59 億弗
 - 輸 入 : 211 億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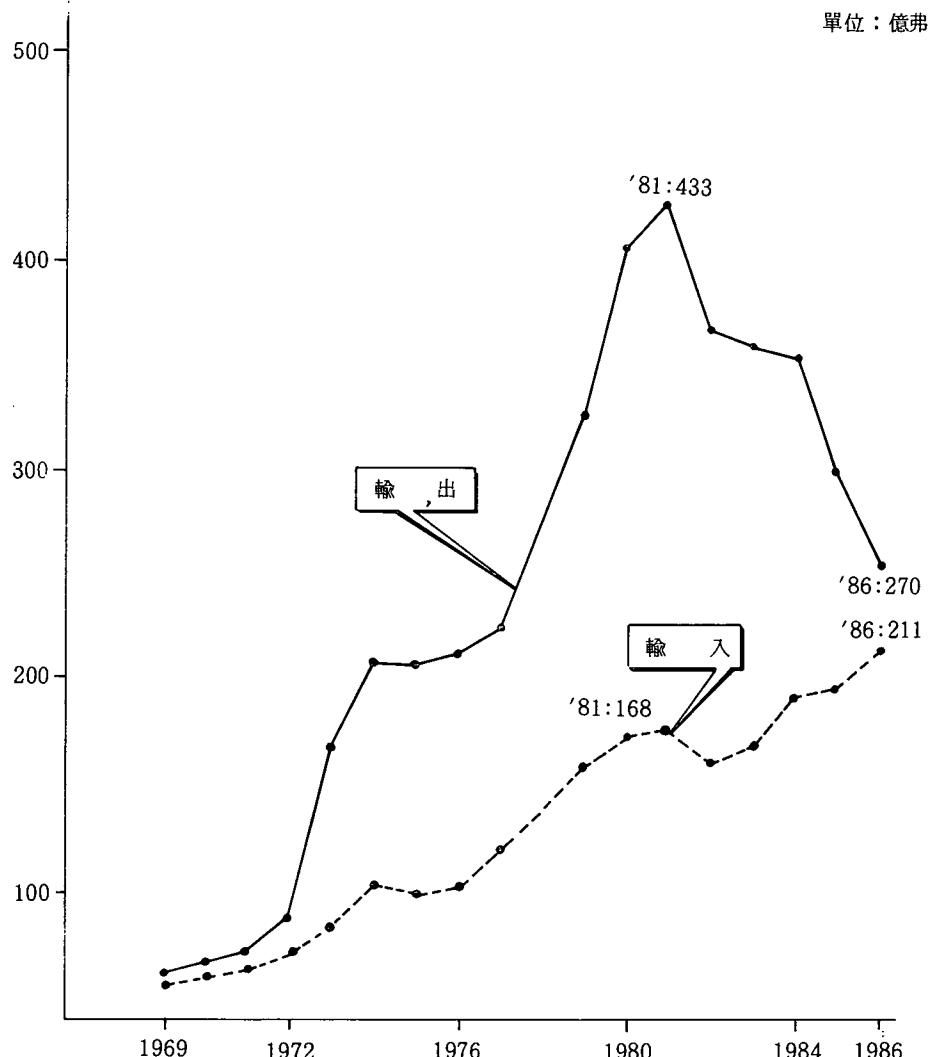
〈農家經濟事情 悪化〉

- 1984 戶當 平均所得 : 29,000 弗 (85 %가 平均所得 以下)
- 1984 戶當 負 債 : 90,000 弗 (所得의 3 倍)

〈農產物 輸出擴大 壓力〉

- 美議會의 綜合貿易法案 通過(上院案 뒤 下院案)
 - 不公正 貿易去來國에 對한 301 條 報復措置 強化
- 우루파이라운드에서 2000 年까지 모든 農產物 補助金 撤廢主張
 - '86 美農產物 補助金 : 260 億弗 (世界全體 1,200 億弗)

〈美國의 農產物 輸出入 推移〉



※ 資料 : FATUS, U. S. FAS, 1986.

〈世界市場에 대한 美國의 小麥, 옥수수, 大豆 輸出의 比重〉

單位 : %

	小 麥	옥 수 수	大 豆
1970	37	41	94
1971	33	57	88
1972	48	71	85
1973	53	58	81
1974	43	63	74
1975	48	72	79
1976	41	71	80
1977	42	75	85
1978	45	76	82
1979	44	79	82
1980	44	72	80
1981	48	70	86
1982	42	71	87
1983	38	71	77
1984	36	65	65
1985	30	55	80
1986	29	78	84

資料 : A Review of U. S.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Trade, 1986.

〈美國의 農家所得 構造〉

農 家 規 模 (販賣額基準)	農 家 數		平均農家所得			耕 作 地	
	千 戶	%	農 所 業 得	農 所 外 得	合 計	所 有	賃 借
\$ 40,000 以 下 (非商業的 小農)	1,638	70.3	\$ -1,387	20,021	18,634	47.9	32.1
\$ 40,000～\$ 100,000 (小規模 商業農)	353	15.2	6,073	9,719	15,792	55.2	44.8
\$ 100,000～\$ 500,000 (大規模 商業農)	306	13.2	44,500	10,902	55,402	54.1	45.9
\$ 500,000 以 上 (初大規模商業農)	31	1.3	423,063	14,438	437,501	60.4	39.6
合 計	2,328	100	11,471	17,188	28,659	64.1	35.9

* 資料 : Economic Indicators of the Farm Sector, 1984.

III. 우리의 農產物 交易政策

1. 輸入政策

가. 輸入의 不可避性(우리의 農業構造)

- 國民 1 人當 耕地面積 比較
 - 韓國 160 坪, 美國 5,500 坪, 아시아 1,240 坪, 世界 3,500 坪
- 우리가 가지고 있는 耕地面積에서 우리가 必要로 하는 모든 農產物을 自給하기는 事實上 不可能

나. 輸入構造

- 그동안 人口增加와 經濟成長에 따른 基本的인 食糧需要의 擴大, 食品消費패턴의 高級化로 輸入增加
- 1980 年에 冷害로 32 億弗 導入 (最大)
 - '86 年 : 25 億弗 (農產物 18.1, 林產物 6.1, 水產物 1.2)
- 部門別 構造 ('86 年의 境遇)
 - 農產物 : 小麥, 옥수수, 콩 등 食糧, 飼料穀物이 58 %, 其他는 價格安定用
 - 林產物 : 大部分 原木 (製造用 原木), 國內 山林保護上 不可避
 - 水產物 : 90 %가 輸出用 原資材

〈農林水產物 輸入動向〉

單位：百萬弗

	1977	1980	1983	1984	1985	1986	'87.11
計	1,398	3,173	2,872	2,853	2,510	2,538	2,601
農畜產物	836	2,220	2,125	2,088	1,801	1,806	1,670
◦糧穀・飼料穀物	497	1,095	1,106	1,085	967	920	998
◦畜產物	140	161	340	253	147	123	134
◦其他	200	965	679	751	688	763	538
林產物	544	904	682	690	617	611	749
◦木材及合板	537	898	667	664	590	598	733
◦石材及石製品	0.8	1	7	18	21	6	8
◦其他	7	5	7	7	6	7	8
水產物	18	49	65	75	92	122	182

2. 輸入自由化 推進狀況

가. 現況

◦ 經緯

- 1978年부터 輸出 100億\$達成을 本格화
- 1984年부터 輸入自由化豫示計劃에 따라 推進
- 農林水產業은 產業上特性을 考慮, 段階的으로 推進
('87.7.1自由化率: 全體 93.6%, 農林水產物 69.1%)

◦ 輸入自由化率

(%)

	1984	1985	1986	1987
全體	80.8	87.7	91.5	93.6
農林水產物	64.4	66.2	68.4	69.1
農產物	68.3	69.7	71.1	72.2
林產物	92.1	93.4	93.4	93.4
水產物	46.7	49.3	54.2	54.2

나. 品目別 推進內譯

- 農業生産基盤과 農漁家 所得增大에 미치는 影響이 적은 品目들임
- 段階的 開放으로 國內에 미치는 波及效果 最小化
- 品目別 自由化 推進現況

	農畜產物	水產物	林產物
1983 (31)	종계이외의 닭, 돼지비계, 동물의 피, 사채, 가금의 비계, 토끼고기,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살구, 자두, 면실, 냉동파실(2), 피마자, 겨자유 피마자유, 생모피(토끼의 것 산양의 것) (19)	장어, 복어, 삼치, 전어(신선, 냉장), 보리멸(냉동), 전어(염장), 조기알젓, 청어알젓, 문어(산것), 미역, 생선페이스트, 캐비어 및 캐비어 대용물 (12)	
1984 (18)	종계(185kg 이상, 185kg 이하), 레몬파라임, 무화파 생모피(밍크, 친칠라, 쥐, 기타) (8)	금붕어, 열대어, 기타 판상용 활어, 송치, 삼치, 새우(산것), 굴(양식용이 아닌것), 소라와고동, 돌가재(냉동), 바다가재(건조) (10)	
1985 (14)	면실유, 그레이푸르트, 옥수수, 통조림(종우용 절소, 기타 종우용소, 종돈동물의 정액: 특별법 제한) (7)	복어, 가다랭이, 양식용이 아닌 산계, 굴(신선, 냉장), 꿀뱅이, 우렁이 (6)	아몬드 (1)
1986 (18)	루풀린, 칠면조고기, 기타 가금류 고기, 가금류의 식용 설육, 토마토소스, 인스턴트 커리, 커피·차등의 기타	도미(산것), 마다랭이(신선 냉장), 굴(건조), 오징어통조림, 계통조림, 소라통조림, 전복통조림, 전조대구, 기타 물고기통조림, 소라(신선, 냉장), 소라(냉동) (11)	
1987 (9)	가금고기통조림, 돼지고기통조림, 감(단감제외), 방광, 소시지 유사조제식료품, 그레이프푸르트쥬스, 레몬쥬스, 크렌베리 혼합쥬스, 타라종자 배유부분 (9)		
1988 (5)	마르멜로, 황도통조림(가당), 과실카테일통조림(가당), 별개 이외의 조제 과실통조림(무가당), 대두유		

4. 輸入開放品目 輸入實績

- 1983 ~ 86 年까지 開放된 品目 : 81 個
- 1986 年 導入實績 : 1 億 3 千萬弗이나, 그중 大部分 再加工 輸出 되는 毛皮등 輸出用 原資材가 82% (1.1 億 \$) 임.
- 一部 主張처럼 無節制한 狀態로 輸入되는 것이 결코 아님.

單位 : %, 千 \$

	1983		1984		1985		1986		1987. 11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1983 (31個)	6,148	9,409	5,529	10,578	5,931	13,647	6,265	11,872	14,884	20,402
1984 (18個)	-	-	1,756	74,753	2,159	86,153	2,870	112,289	15,987	270,176
1985 (14個)	-	-	-	-	3,173	7,358	7,592	7,213	8,205	7,757
1986 (18個)	-	-	-	-	-	-	35	241	164	367
1987 (9個)	-	-	-	-	-	-	-	-	638	1,220
計 (81個)	6,148	9,409	7,285	85,331	11,263	107,158	16,762	132,118	39,878	299,922

1) '87 輸入額 중 輸出原資材로 使用되는 毛皮類가 62% (185,573 千 \$)

農藥原劑가 30.5% (91,605 千 \$) 를 차지

3. 輸出政策

가. 輸出의 必要性

- 單純自給營農時代에서 商業營農으로 進展
- 農漁家所得源의 安定的 確保와 農林水產物 需給調節能力을 強化해 나갈 必要性 增大

4. 輸出政策 方向

- 農林水產物의 競爭力を 向上
 - 品質의 高級化로 商品性 提高
 - 輸出節次 改善으로 輸出에 따르는 附帶費用 節減
- 輸出市場의 多邊化
 - 사과, 배 등 果實類 : 中東, 美洲地域으로 擴大
 - 水產物 등 : 東南亞, 유럽市場 開拓
- 輸出資金 支援擴大 等으로 輸出業體의 陸路 打開
 - 原料蒐集資金 支援
 - 加工業體에 對한 中長期資金 支援擴大

〈農林水產物 輸出 動向〉

單位 : 百萬 \$

	1977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11
計	1,528	1,725	1,415	1,472	1,398	1,925	2,264
農產物	275	225	155	217	164	200	282
◦ 加工食品類	73	51	50	56	60	77	89
◦ 生絲類	125	65	39	43	20	31	25
◦ 其他	77	105	66	118	84	92	168
林產物	549	629	353	300	264	333	422
◦ 木材・合板	464	472	165	123	78	97	118
◦ 石材	31	58	74	76	64	121	147
◦ 其他	54	99	114	101	102	115	157
水產物	703	871	904	955	970	1,384	1,560

- 輸出增加要因 : 엔고現象의 持續에 따른 對日 輸出 增大 및 輸出 有望品目開發 등을 通한 積極的인 輸出促進對策의 推進으로 輸出이 크게 增加 (豚肉, 사과, 밤, 김치, 石材 등)

IV. 對美通商政策

1. 韓美 交易現況

가. 對美 貿易黑字幅의 增加

- 1980 年代初까지는 대체로 韓・美間에 貿易收支가 均衡을 維持해 왔으나, 1982 年부터 우리측의 黑字로 轉換
- 最近들어 黑字幅이 急激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나라는 '87 年에 美國의 第 5 位 貿易黑字國으로 浮上됨 ('84, '85 : 9 位, '86 : 5 位)

〈對美 輸出入 및 黑字規模〉

單位 : 億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輸 出 (A)	57	62	82	105	108	139	182
輸 入 (B)	61	60	63	69	65	65	87
收 支 (A - B)	△ 4	2	19	36	43	74	95

資料：關稅廳統計 基準, 1987 年은 暫定值

나. 對美 農產物 輸入額 減少

- 1981 年 이후 우리나라의 連續的인 豐作에 따른 食糧導入 減少와 飼料穀物 輸入先 多邊化施策 推進
- 우리나라의 對美 農產物 輸入額은 '84 年以後 繼續 減少趨勢를 보여왔으나 '87 年의 購買使節團派遣으로 다시 反轉됨.

〈對美 農產物 輸入〉

單位：百萬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計	2,008	1,581	1,840	1,650	1,413	1,293	1,693
穀 物	1,119	747	931	648	487	376	528
其 他	889	834	909	1,002	926	917	1,165

資料：美 FATUS (海外農業處) 統計, 87 年은 잠정치

다. 美國의 國內事情 惡化

- 民主黨의 議會支配, 貿易赤字 擴大에 따른 國內的인 反撥高潮, 1988 年 大統領 選舉를 意識하여 市場開放壓力을 強化하는 內容 的 綜合貿易法案이 美上院과 下院에서 各各 通過됨.
- 이리한 議會의 움직임과 함께 美行政府도 國內景氣의沈滯를 막고 貿易赤字 擴大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通商懸案問題 解決을 為한 積極的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基本方向

가. 全體的인 立場

- 우리 輸出市場의 40 %를 차지하는 美國市場을 効率的으로 管理하고, 通商摩擦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美側 關心品目의 輸入開放 과 輸入擴大를 통하여 올해 對美黑字規模가 適正水準으로 維持되도록 努力
- 이를 為해서는 美側 關心品目이 消費財, 農產物 等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一部 消費財와 農產物의 輸入開放의 要求됨.

나. 當部의 立場

- 零細小農構造의 우리나라 農業이 가지고 있는 特殊性을 勘案, 國

內農業生產基盤과 農家所得에 미치는 衝擊을 줄이고 對美通商摩擦을 緩和할 수 있도록 段階的인 開放政策을 推進하되 開放에 따른 波及效果를 줄이기 為한 補完對策을 講究하여 나가는 것임.

3. 政府가 취한 主要措置

- 當初 豫示計劃에 따라 가금고기통조림 등 5 個品目을 '87. 7. 1. 부터 開放할 計劃이었으나 레몬쥬스 등 3 個品目을 追加하여 9 個品目開放 (알팔파 10,000 %試驗輸入)
- 19 個 農林水產物에 對한 關稅를 '87. 7. 1. 부터 5 ~ 10 %씩 引下
- 對美穀物 購買使節團 派遣 ('87.2.16 ~ 3.4) 으로 小麥, 옥수수, 大豆 124 百萬 \$ 購買

<美國 開放要請品目에 대한 措置>

- 一部 輸入許容

CCCN	品 目	關稅率	輸 入 制 度	'87 輸入實績(美國)
1005-0000	옥수수종자	7 %	장관추천	100 %
1201-0201	알팔파	20	축협회장추천	10,000 %
2007-0101	오렌지농축액	50	농협회장추천	2,688 %

- 開放이 안되고 있는 主要品目

CCCN	品 目	關 稅 率	輸 入 制 度	備 考
0201-0101	高級쇠고기 (뼈있는것)	20 %	畜協中央會長推薦	
0201-0102	高級쇠고기 (뼈있는것)	20	"	
0201-0500	식용설육	20	"	
0702-0300	冷凍감자	30	輸入監視品目	
0802-0100	新鮮오렌지	50	農林水產部長官推薦	
0804-0100	新鮮포도	50	"	
0806-0100	사과	50	農林水產部長官推薦	
0806-0201	배	50	"	
0810-0000	冷凍복숭아	50	輸入監視品目	
2007-0101	오렌지쥬스	50	農林水產部長官推薦	
2007-0602	포도쥬스	50	"	
2205-0300	샴페인	100	國稅廳長, 交通部長官推薦	
2207-0199	其他 果實蜜酒	100	"	
2301-0101	肉分	10	單味飼料協會長推薦	

4. 向後 推進對策

- 美側 關心品目에 對하여 我國이 取한 開放措置와 함께 輸入 自由化 施策을 推進하는 政府의 基本立場을 美側에 說得 努力
 - 韓·美經濟協議會, 貿易實務會議等을 通한 通商協力 強化
- 輸入依存品目的 對美 輸入擴大로 輸入開放 要求를 緩和
 - 食用小麥, 옥수수, 大豆, 原綿 等
- 追加로 開放을 要請하는 品目에 대해서는 國內 需給狀況을 考慮하여 彈力的으로 對處

V. 앞으로의 課題와 推進對策

〈課

題〉

- 全般的인 貿易自由化 趨勢에 彈力的으로 對處
- 農產物 交易自由化를 希望하고 있는 各國의 利益과 要求를 우리의 農業生產基盤과 農家所得에 影響을 크게 미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收斂함으로써 通商摩擦을 最小化
- 國家全體로는 持續的인 輸出增大를 위한 市場 多邊化를 推進함과 同時に 農業과 農村에 對한 支援을 強化함으로써 우리의 農業과 農村을 健全하게 育成, 發展

〈推進對策〉

- 安全生產을 위한 農業構造改善 投資는 繼續 擴大
 - 生產性向上을 위한 農業生產基盤 및 營農技術革新分野에 대한 投資擴大
- 長期的인 眼目的 農家所得增大와 農產物 需給調節
 - 農業所得增大施策의 推進과 併行한 農外所得源의 持續的인 開發
 - 流通構造 改善과 價格支持施策의 推進
- 段階的인 輸入開放政策의 推進
 - 輸入自由化 豫示計劃에 依한 年次別 開放

- 農林水產物의 輸出 擴大
 - 持續的인 輸出有希望品目 開發과 海外市場의 開拓
- 우루파이 라운드 協商에 能動的으로 對應
 - 農產物輸入 開途國으로서의 我國立場 反映 努力
 - 協商能力提高를 위한 有機的인 協力體制 講究

〈參 考〉 GATT 紛爭狀況 및 事例

1. 1975~1985. 9.間 紛爭狀況

國 別	總 計		製 品 形 態			規 制 手 段					
	件 數	比 率 (%)	製造品	農產物	其 他	關 稅	補 助 金	配 銘	稅 金	其 他 NTM	其 他
總 計	42	100	16	21	5	8	8	12	3	10	1
美 國	24	57									
提 訴	16	38	4	10	2	1	3	4	2	6	0
被 訴	8	19	4	3	1	3	0	3	0	2	0
E C	24	57									
提 訴	7	17	4	0	3	3	0	0	0	3	1
被 訴	17	40	2	14	1	2	8	3	1	3	1
朝 鮮 大	11	26									
提 訴	6	14	3	3	0	1	0	4	0	1	0
被 訴	5	12	2	1	2	1	0	1	1	1	0
日 本	7	17									
提 訴	0	0	0	0	0	0	0	0	0	0	0
被 訴	7	17	5	1	1	0	0	4	1	1	1
豪 洲	2	5									
提 訴	2	5	0	2	0	2	0	0	0	0	0
被 訴	0	0	0	0	0	0	0	0	0	0	0
其他先進國	7	17									
提 訴	2	4	2	0	0	1	0	0	1	0	0
被 訴	5	12	3	2	0	2	0	1	0	2	0
開 途 國	9	21									
提 訴	9	21	3	6	0	2	3	4	0	0	0
被 訴	0	0	0	0	0	0	0	0	0	0	0

資料 : US IT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rad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GATT and Tokyo Round Agreements 1985. 12. 30.

2. 織物類(TEXTILE PRODUCTS)紛爭 解決事例

分野	提訴國	被訴國	紛爭要旨	經過 및結果	備考
織物類 (1979. 7.) - 쿼타 -	英 國 (홍콩 대신)	노 르 웨 이	<p>(노르웨이側措置) - 노르웨이는 生產費面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여러國家들로부터의 織物輸入急增으로 自國纖維產業이 深刻한被害을 입고 있어 GATT 19條에 의거一部織物類에 대해 總量쿼타 實施(1978.1월부터)</p> <p>(홍콩側主張) - 노르웨이措置는 形式上으로는 總量쿼타이지만 實際上으로는 EEC, EFTA 國家들을 總量쿼타의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음을 아니라 노르웨이와兩者間協定을 맺고 있는 6個國에 대해서도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어 대노르웨이 主要輸出國인 홍콩의 輸出이 相對的으로 制限받고 있음.</p> <p>- 이는 GATT 13條에 어긋나는 差別的인 數量制限措置에 該當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7 패널構成 (資料) ○ 1980.6 理事會 GATT 報告書 採擇 ACTIVI - ○ 報告書 內容 TIES - 노르웨이의措置는 GATT 13條에 違背되는 것으로서 廢止 되거나 GATT 13條에 一致 되도록 變更되어야 함. ○ 結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11月 노르웨이는 自國의措置를 1981年末까지 延長키로 決定하였음을 理事會에 通報 - 홍콩은 GATT 19條上의 自國의 權利를 留保 	

3. 革製品(LEATHER)紛爭解決事例

分野	提訴國	被訴國	紛 爭 要 旨	經 過 및 結 果	備 考
革製品 (1979. 1. 1983. 4.) (皮革, 半製品, 完製品) - 數量 制限 -	美 國	日 本	<p>(日本의 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 日本은 一部革製品에 대한 數量制限 實施 (1963年까지 GATT 12條에 의한 國際收支 防禦目的에 의거) - 1963年 이후로도 日本革製品 產業 保護의 必要性을 理由로 繼續 數量 制限 實施 (美國의 主張) - 日本의 措置는 GATT 上 權利의 侵害 無効化에 該當하므로 GATT 23條에 의거 解決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1 第1次 패널構成 - 1979.2 美·日 間兩者間 協議에 따라 美國의 提訴撤回 - 兩者間 合意事項이 相互間 滿足스럽게 施行되지 못할 경우 GATT에 問題 再檢討 留保 ○ 1983.4 第2次 패널構成 - 美國은 兩者間 合意가 美國에 게 滿足스럽게 實行되지 못했음을 理由로 패널 再構成 要請 ○ 1984.5 理事會 報告書 採擇 ○ 報告書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革製產業 이 處하고 있는 社會·經濟的인 어려움은 認定하지만 GATT 11條上의 美國의 利益을 侵害한 것임. - 日本은 同制限을 점진적으로 撤廢해야 함. 	<p>(資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D 26th Suplem - ent (pp. 320~321) ○ GATT ACTIVITIES 1985, pp. 39~41 1984, pp. 40~41 1983, pp. 43~44

分野	提訴國	被訴國	紛争要旨	経過 및 결과	備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措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革製半製品에 대해서는 關稅撤廢를 推進하였으나 革製完製品에 대한 數量制限廢止는 留保 ○ 美國主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數量制限 自體의 撤廢 ○ 1985.11 理事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은 革製品 전반에 대해 數量制限을 廢止하는 同時 새로이 關稅賦課를 決定 - GATT 28條에 따라 關聯締約國과의 協商意思 밝힘. ○ 結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4 日本은 革製品 전반에 대한 數量制限을 廢止함과 同時 關稅quit制를 實施키로 하였음을 締約國團에 通報 	

討 議 內 容

座 長 (金榮鎮 :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 지금부터 討論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生產者側 立場을 고려해서 農協大學 徐箕源 教授께 부탁드린다.

徐箕源 (農協大學 教授) : 國際貿易은 開放을 전제로한 이야기지만 저는 視覺을 달리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交易 면에서 美國이 赤字를 많이 보았으니 우리도 물건을 사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그 초점을 國內問題에 다 맞추고자 한다.

우리가 國際經濟를 擴大解說하면 美國의 開放要求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貿易構造가 바뀌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開放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부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자동차·전자제품·신발 등을 수출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하필 이면 產業에 있어서나 階層에 있어서 農民이 犠牲을 치러야 하느냐 하는 게 問題다. 그동안에 우리 農業이 어느 정도 일찍부터 이러한 問題를 예상하고 農業分野에 대한 많은 投資와 育成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덜 할 텐데, 쇠고기 1,200 톤 가지고도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그동안에 基盤構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歷史的으로 보면 解放 이후에 棉花와 小麥이 없어졌다. 그 후에 所得이 늘어나면서 보리가 없어지고 70년대 들어와서도 輸入과 관련해서 飼料穀物은 물론 유채·고구마가 經濟性을 잃었다. 그리고 잡견이 中共때문에 經濟性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農民이 할 수 있는 것은 主穀인 쌀과 남의 나라

가 먹지 않는 고추, 마늘에 집중하고 있으며, 畜產의 경우는 鱗, 돼지는 飼料를 먹으니까 이미 企業쪽에 빼앗겨 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소 한 가지인데 소가 83년에 집중적으로 波動을 입어서 결국 말하자면 作目의 選擇여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許博士의 지적처럼 지금 農產物을 생산해서 機會費用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問題가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지금 飼料穀物에 있어서도 지난해 400만톤이 넘는 飼料穀物을 輸入했고 그중 大豆는 거의 100% 미네소타에서 들여왔다. 그리고 옥수수는 지금 美國의 對韓 Market Share가 36% 밖에 안된다. 우리는 36%를 美國에서 들여왔고 나머지는 輸出入 多變化다 해서 아르헨티나, 中共, 泰國에서 수입하고 있다. 美國이 이렇게 압력을 넣을 때 톤당 價格差異도 크지 않은 옥수수 만이라도 美國에서 들여 왔더라면 壓力이 다소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지금까지도 계속되지만 87년 上半期에는 全飼料穀物의 價格이 暴落했다. 그런데도 國內飼料業者들 한테는 작년에 두세 차례에 걸쳐 겨우 5.4% 다운 시켜주고 있다. 사실 우리 計算으로 보면 작년 飼料값이 34%는 떨어졌어야 된다. 飼料業者들이 그렇게 많은 暴利를 하고 이제는 그것이 잘 안된다 해서 301條 發動하면 큰 일 나니까 결국 農民에게 被害를 준다고 하는 것은 國內問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協商方法에도 差異가 있다. 사실 日本은 美國에게 비굴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協商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우리는 公務員이 너무 앞에 나서는 그런 方式이 不適合하다고 본다. 일본 사람들의 간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예를 들면, 泰國이 오키드란 西洋蘭을 日本에 切花로 수출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日本 사람들이 현미경을 들여대고 벌레를 잡아낸다. 蘭草는 어떤 경우에도 벌레가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보여줌으로서 輸入을 제한한다. 또한 84년에 대만이 바나나가 豐作이 되어 日本에 輸出을 할 때도 고베에 있는 植物防疫検査場所를 효고엔현에 옮겨다 놓고 그 많은 物量을 그곳까지 運搬하게 해서 거기서 不合格을 시킨 사례도 있다. 물론 파워 게임에서도 臺灣이 약하니

까 그렇겠지만 그런 방법까지 써 가면서 輸出을 자제하도록 相對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協商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協商이라고 하는 것은 農民이면 農民, 그리고 政府官吏와 中間에 있는 各種 業體가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長期間 하는 것이다. 우리가 日本에게서 그런 것에 대해 배울 점이 많이 있다. 日本은 27개 輸入制限品目을 가지고 있고 그중 22개가 農水產物로서 레이전大統領 就任當時에도 오렌지, 쇠고기는 繼續 開放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開放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2개 品目을 개방하겠다고 約束은 했지만 그것도 아마 1년은 걸릴거라고 보고 있다. 협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이소오 게임 비슷하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突變해 가지고 協商에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李載玉 博士도 指摘했듯이 지금 옥수수에서 처럼 輸入農產物이 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눈에 보이게 賦課金을 붙이고 하는데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서 얻은 收益으로 나머지 生產者에게 돌려주는 방식이一般的으로 日本이나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 콩이나 옥분 문제를 놓고 볼 때도 옥분 같은 것을 一般 輸入業者 團體에다 그냥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지금 GATT 14條에도 指摘하고 있듯이 우리가 時代의 흐름을 모르고 오히려 國營企業쪽으로 이런 것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개 大企業들이 飼料輸入을 많이 하고 있고 畜協은 예외지만 그 會社가 飼料를 導入하면서 되지도 기르고 벼농사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財閥들을 어떻게 해서 規制를 못하는지 안타깝다. 한 때는 롯데가 뉴질랜드하고 치즈 問題로 화제가 된 일도 있읍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莫強한 힘을 가지고 있는 政府가 어째서 財閥들에 대해서는 약한지 의문스럽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소뿐만 아니라 고추, 마늘, 양파, 쌀 이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農業組織이 바뀌면서 開放化의 충격을 단계적으로 緩和시키면서 오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金忠植(畜協企劃室長)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畜協立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品目이건 소나 쇠고기의 輸入은 絶對로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동안 政府가 畜產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으로써 오늘날 우리 畜產業이 하나의 獨립적인 산업으로서 農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5년 동안 아주 방대하게 증가되었다. 지금 計數로서는 許博士, 李博士께서 모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農民들은 畜產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畜產業의 실질적인 所得에 힘입어서 향후 畜產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우리가 쓰라린 經驗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 당시 比較優位 또는 國民經濟의 安定, 工業化 推進 等 여러 가지 政府次元의 經濟政策 때문에 소 및 쇠고기 등을 막대하게 수입하였다. 그 결과 農民들이 生產한 소나 畜產物의 價格은 여지없이 下落했고 農民들의 심리적인 충격과 實質的 所得의 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약 2개년 동안에 걸쳐 집중적으로 財政部門에서 약 3,300 億 정도를 투입해서 畜產所得의 向上과 畜產物需給安定을 위해 지원을 해주었다. 그 결과 겨우 87년 下半期 들어와서 그동안 침체했던 畜產業이 回復勢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지난번 大統領 選舉當時를 비롯해서 政府가 여러 형태의 公約과 정에서도 앞으로 쇠고기 등 畜產物의 輸入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農民들은 希望을 가지고 지금도 畜產業에서 손을 떼지 않고 繼續 영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農民들에게 심리적인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형식적인 經濟理論에 의한 설득보다도 평범하게 심리적인 안도감과 희망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우리나라 農家의 農業活動이 活性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養畜 農家들의 高卒 수준 정도의 일반 經濟常識으로 본다 할지라도 지금 政府에서 觀光호텔용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하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流通量의 1~2% 정도이고 소값에 미치는 영향이 몇 %밖에 안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더 큰 問題는 심리적인 問題이다. 政府의 農漁民後繼者 育成計劃에 힘입어서 많은 高卒出身 젊은이들이 農村에 남아서 農業을 할려고 하고 政府도 이를 長期計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高卒出身者들의 쇠고기 輸入에 관한 생각

은 앞으로 美國에서만 輸入하게 될 것이 아니라 호주, 남미, 구라파 등 國際競爭力を 갖추고 호시탐탐 機會만 보고 있는 다른 國家들의 壓力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世界도처에서 쇠고기 輸入開放壓力이 들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美國한테만 商品輸出할 것이 아니고 全世界各國에 다변화해서 輸出을 할텐데 그나라 各國의 壓力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觀光호텔용 쇠고기 뿐만 아니라 一般 쇠고기도 차츰 輸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 中共, 형가리 등 共產圈 國家들과의 交易可能性이 높아지고 있으며 中共은 지금 日本에 소를 輸出하고 있다. 그렇다면 中共이 또 韓國보고 소 輸入을 要求할 것이고 따라서 世界 각국에서 소와 쇠고기가 몰려오게 된다면 내가 왜 農村에 남아서 農漁民後繼者를 하느냐? 또 내가 왜 소를 키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소 飼育意慾은 사라지고 우리나라 소 飼育基盤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편에서는 쇠고기 輸入해서 먹고 農村青年들은 다시 都市에 나와서 TV 工場, 自動車會社에 취직하면 그만큼 더 월급을 받고 所得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農政에서 畜產業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畜産을 포기하고 만성적인 肉類輸入國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읍니다만 어쨌든 이러한心理的 요인 때문에 불과 流通量의 1~2% 정도의 觀光호텔용, 또 價格에 미치는 영향이 불과 몇 % 정도라는 판단만 가지고는 100萬 養畜家들의 심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全體 國民經濟 측면 또는 國益의 측면에서 약간의 觀光호텔용 또는 高級 쇠고기만의 輸入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農民들에게 心理的인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 畜產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問題에 있어 畜協으로선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許博士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生計手段으로 소를 키우던 時代는 지났고 하나의 獨立事業으로 소를 키우고 있다. 즉, 自己가 얼마의 生產費를 들여서 얼마만큼의 利益을 내느냐가 실질적 目的이다.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生產費가 그만큼 떨어져 준다면 손해가 없다. 따라서 쇠고기 도 수입하면서 所得도 높일려면 生產費를 절감해야 하는데 生產費의 50~

60%를 飼料費가 차지하기 때문에 飼料費가 生產費를 좌우한다. 만약 飼料 한포대가 3,000 원일 때 飼料값이 10% 내리면 쇠고기 輸入으로 소값이 5% 정도 떨어져도 農民들에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飼料의 대부분을 外國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輸入穀物中 農民負擔關稅를 면세해 주고 가공해서 農民들에게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해 주면 農民負擔關稅 3%와 부가가치세 3~4%가 공제되어 農民購入價格을 7~8% 절감시키는 對處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收買備蓄과 관련하여 쌀 生產農家 보호를 위해 政府가 1兆원 정도의 糧特赤字를 감수하고 있다. 소의 경우에도 政府가 安定帶를 설정하고 豫告하여 수매한 다음 國內에서 싸게 방출하여 發生된 差額缺損을 畜特赤字라고 해서 間接보상을 해 주면 農民에게 손해없는 意慾的 畜產政策이 될 것이다.

楊秀吉 (KDI 研究委員) : 研究機關에 있다보니 여러 가지 經濟問題 討論會에 참석하게 되는데 農村問題에 대해서는 언제나 겹혀한 자세를 갖게 된다.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취지부터가 최근의 國內外 與件變化에 대처하기 위한 認識의 基調를 다지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간의 情報와 意見을 교환하는 것이 會議를 生產的으로 이끄는 方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農經研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은 도움이 되면서도 어떤 認識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通商問題의 심각성에 대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나쁜뉴스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쇠고기, 담배만 거론했는데 앞으로 數年間은 우리農業이 끊임없는 通商問題로 계속 불안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요인은 許博士 資料에도 나와 있지만 美國의 經常赤字 問題가 날로 심각해져 赤字援和도 해야 되겠고 또 世界불경기를 모면하려면 다른 나라도需要를 팽창시키고 輸入도 擴大해야 한다는 壓力도 있는데다 우리의 經常黑字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農業保護水準이 日本과 아울러 매우 높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高度成長 展望이 좋고

黑字定着의 展望이 좋기 때문에 外國人에게 好感을 주는 市場性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與件들은 상당히 구조적인 問題로 하루아침에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金漢坤局長도 紹介를 했습니다만 우루파이라운드에서 보면 農產物 輸出國 13 개국이 힘을 합치고 美國은 美國대로 독자적으로 農產物 交易 自由化에 대한 政治的 意志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農產物 상당수가 期別 公告上 自由化 留保品目으로 되어 있고 또 輸入監視品目이라고 해서(연말이면 원칙적으로 없어지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品目 모두가 開放目標가 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 보면서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버티다 끌려가서 쇠고기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가? 버틸수 없다면 選擇의 幅을 넓혀야 할 중대한 決定問題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通商問題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저는 비판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農產物 輸入開放의 本質을 美國 또는 외국으로부터 通商壓力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農業問題를 보아야 한다. 우리 農村政策의 基調는 都市에 못지 않은 所得向上과 安定을 유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合理的인 政策配合은 어떻게 해야 하고 輸入政策의 役割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저는 다른 몇 분과 생각을 달리 한다. 農產物 輸入開放을 無計劃하게 계속 지연시켜서는 政策目標에 기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營農體制에서는 農業所得의 신속한 향상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對策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在村脫農이 필요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 한 農村問題는 輸入開放을 떠나서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런점에 대비해서 與件變化에 따른 政策提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만일에開放을 해야 한다면 計劃性 있게 해야 한다. 10년 정도를 생각해서開放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택하고開放을 못하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 政策에 대한 國際公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GATT를 통해 外國의 認定을 받아야 만 301條에도 저촉안되고 뜻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쇠고기 問題가 좋은 예로서 GATT에선 亮許를 해놓고 國內에선 輸入開放 안하겠다 하

니까 問題가 된것이다. 그렇다면 쇠고기의 關稅亮許를 GATT에서 철회하고 美國에 그에 상당한 보상으로 다른 市場을 열어 주는 政策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가 保護政策을 유지하려면 國際的 公認을 받아 당당하게 해야 問題가 없어진다. 우리의 適正保護를 위해서는 總括的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農村開發計劃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長·短期 計劃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開放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長期的인 計劃下에서 10년後에 개방을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保護를 해준다 하고 豫示된 日程 하에서 開放이 된다면 이럴 때 우리가 潛在的 比較優位를 가진 品目을 발굴하는 테스트메카니즘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品目을 발굴해 나가는 農民 자신이나 政府政策의 努力を 재촉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보호를 할 바에야 競爭力を 재촉하는 方法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農村構造調整 10개년 計劃을 세워 놓고 거기에 비추어서 開放與否를 결정해야 하며 開放方法에는 畜協이나 協會를 통해서 規制를 관리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方法과 數量規制를 없애는 대신 關稅水準을 높게 하여 일종의 自律的 開放(보기에 따라 保護)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品目별로 어떤 手段을 적용해야 할지는 찾아야 된다. 通商外交 측면에서 우리의 問題는 通商技術의 問題가 아니라 通商政策基調와 우리의 國內政策問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USTR에게 말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하다. 그리고 農產物 輸入을 生產者協會가 관리해야 당연하다는 李載玉博士의 意見엔 반대한다. 輸入開放은 政府 主導型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담배 問題에 있어서도 우리가 美國한테 다소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國內 담배 生產體制에 問題가 있다. 몸에 나쁜 담배를 國家가 생산하고 더구나 獨占體制로 운영을 한다는 問題가 있는데 이런 體制自體가 고쳐져야 通商에 있어서 選擇의 幅도 넓어진다. 그리고 通商問題를 따지다 보면 政府가 여러가지로 開放이 어려운 여건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좋은 政策도 많지만 合理性이 결여된 規制的 政策이 많다. 이러한 것도 通商問題의 저변에 갈려 있다.

끝으로 조금 전에 生產者의 政治的 영향력이 높아지니 补償을 해야 한

다고 하는데 2 가지 점에서 意見을 달리 한다.

첫째는 原則的으로 補償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輸入自由化의 논리라는 것이 輸入自由化로 인해서 得을 보는 사람이 損害를 보는 사람들 相殺해 주고도 남는다는 理論에 근거했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補償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차원에서 輸入自由化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는 先進 各國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그리고 보상을 해준다면 農村全體를 총괄적으로 본 構造改善政策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生產者의 政治的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나의 政策이라도 그 政策의 영향을 받는 生產者, 消費者, 交易相對國 등 利害關係 당사자 모두의 利益이 均衡을 이룰 수 있는 民主化된 政策이어야 한다고 본다.

具本英 (經濟企劃院 第3協力官) : 楊秀吉 博士께서 저와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어서 크게 추가할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 問題에 대한 어려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農村問題는 우리나라의近代화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許博士의 論文에는 70년대 產業化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農村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全體 人口中 農民 비중이 60년대초 60%에서 지금은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80% 정도는 農村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消費者라기 보다는 生產者와 같은 立場에서 農村을 보게 되니 問題解決이 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부터 우리도 根本的으로 認識을 전환해야 할 時期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특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認識轉換이 없이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치 못할 아픈 構造調整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認識轉換의 主體는 經濟企劃院이나 KDI 보다는 農經研이나 農林水產部가 되어야 한다. 農民의 아픔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분들이 나라의 앞길을 보면서 지금 農政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農民들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또한 農經研이나 農林水產部에

서 생각하는 것하고 經濟企劃院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사실 다를 수가 없다. 만약에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두 機關이나 두 部處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상하다. 그것은 분명히 한 쪽에서 사실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다.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봄도 사실 結論은 하나지 들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어려운 問題에 있어서는 言論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주변사정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楊秀吉 博士도 말씀했지만 나라의 成長이 國民들 생각보다 대외적으로 상당히 커져 있고 日本이 韓國을 OECD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할 정도다. 韓國의 貿易規模가 世界에서 12 번째라고 하며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소위 世界經濟를 움직인다는 G7 미팅을 하는 7개국인 美國, 日本, 카나다, 英國, 프랑스, 독일 등이 있고 소련이 여덟 번째 그 다음 화란, 벨지움, 대만, 韓國이다. 다시 말씀드려 國際經濟에서 7개국 및 화란, 벨지움을 제외하면 臺灣, 韓國이 그 정도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先進國들 立場에서 보면 韓國이 國內 어려움을 아무리 이야기 해도 相對國들은 韓國의 國際的役割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農經研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戰略品目的 開發支援이다. 戰略品目에 대해서는 國家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및 育成政策을 세우는 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農經研에서도 輸入自由化 스케줄을 짜주어야 될 것 같다.

輸入自由화는 막을 수가 없고 쇠고기는 시초에 불과하다. 저희들이 66개 품목을 받아놓고 앞으로 과상적인 공격이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農經研이나 農林水產部에서 開放스케줄을 발표해야 된다. 농민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지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301條가 發動되어 自動車·電子와 같은 財閥保護를 위해서 農民이 희생하느냐 하는 소리들으면서 開放하게 되면 農民들의 욕도 듣게 되고 被害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쇠고기 問題를 계기로 해서 農政에 대한 根本的認識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許信行 (農經研 研究委員) : 具博士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토론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지금쯤 農業도

개방화에 대비하여 근대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이런 對話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研究結果를 가지고 對話를 할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많이 생겨야 되겠고 또 對話를 많이 하다보면 結果는 한 가지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同感을 표시한다.

南達成(東亞日報記者) : 農林水產部를 4년간 출입하면서 이런 세미나는 처음이다. 오늘 쇠고기·담배 輸入에 관하여 直接 討論에 참가하기 위해 오신 非農林水產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農林水產部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一見 論理가서는 듯하다. 楊秀吉 博士께서 農村構造調整 10個年計劃을 세우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答辯으로 許信行 博士께서 계획은 세웠지만 메아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리고 具本英 局長께서 輸入開放品目을 年次的으로 수립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본다. 앞으로 政策으로 수립될 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所任을 다해야 한다. 專門家는 專門家대로 政府는 政府대로 政策을 만들고 言論은 그들의 뜻을 國民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830萬 農民을 대표하는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다. 왜 미약했는가를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李載玉 博士께서 被害農家에 대한 補償政策을 대충 열거하셨는데 이 점은 잘 모르는 新聞記者에게도 별 도움이 안되는 듯 하다. 쇠고기 輸入에 따른 收買政策과 收益金 活用 등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農民의 54%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破産 지경의 백만 농가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政策으로 立案되든 안되든 간에 研究하고 걱정하는 專門家는 더 많은 代案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農林水產部 當局者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農業政策 특히, 畜產政策은 朝令暮改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말 우리나라 소 飼育頭數는 151萬 6千頭였다. 그것이 畜產振興 10個年計劃에 따라 86年6月에는 304萬 3千頭까지 두 배로

늘어났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畜產振興이 되는 듯했다. 그렇게 하다가 需要보다 飼育頭數가 많아지니 소 줄이는 政策을 84년부터 지금까지 20 가지가 넘게 실시했다. 오늘날 소는 다시 238 萬餘 頭에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대한 農政을 펴면서 아직도 農林水產部는 4千萬 우리 國民이 필요로 하는 소의 適正頭數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勿論 農產物이 工產品과 달라 原價가 자로 재듯 산출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農政이 解放 이후 40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基本 데이타가 없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飼育規模別, 飼料別 등 적어도 이런 정도의 標本生產原價는 정해야 한다. 또 한 가지 金漢坤 局長께서 GATT 나 301 條에 대해 協商을 改始 중이다. 특히, GATT에서 來週中 쌍무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資料를 보니 우리 고충을 반영하여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대목이 있는데 美國은 매우 高度化된 나라다. 1977년 美國과 英國이 200 海里를 선포한 1月 1日 世上은 깜짝 놀랐다. 第3次 海洋法會議가 이어질 때 11년 동안 반대하다 갑자기 200 海里를 선포했다. 그것은 어떤 國際的協力이나 規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힘의 優位에 의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 法은 第3次 12會期 뉴욕會議에서 통과되었다. 172개국중 17개국이 반대하고 나머지 國家가 찬성해 통과되었다. 통과한다 해도 60개국이 비준해야 法이 發効될 수 있으나 그 4년 전부터 美國, 소련은 200 海里를 선포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고 했다. 그러한 美國이 올해부터는 資源自國化主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쿼터는 하나도 없다. 85年 5月 美國의 水產廳長과 울프次官補가 와서 빠르면 87년, 늦어도 89년까지 韓國의 쿼터를 ZERO BASE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행해 왔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美國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한 配合飼料의 國內輸入이 對美協商의 좋은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1 條發動時期前, GATT에 제소되기 전에 왜 그렇게 좋은 무기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쇠고기, 담배 외에 앞으로 69.1%의 農產物 輸入自由化問題는 계속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問題를 놓고 現在와 같은 안일한 政策이나 研究가 아닌 좀 더 과감한 勞力を 들여 좋은 結果를 얻도록 합심해야 하겠다.

朴贊植(韓國日報記者) : 어느 분께서 言論의 계도적 役割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지어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어떻게 農民을 설득하느냐 하는 問題가 나온다. 이제까지 農村所得을 올려준다는 측면에서 國家的 次元의 對策을 보면 農漁家負債輕減對策, 農家所得政策 등이었다. 기본적으로 農村所得을 올리려면 農業所得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短期的 인對策은 실제 農業發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農村社會를 유지시키고 農村人口의 정착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食糧資源 확보와 農村生活 향상에 農工地區 政策같은 것이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政府가 쇠고기 輸入을 계기로 이제까지 商工業部門의 發展을 위해 지원하고 構造調整을 해 준 것처럼 앞으로 農業近代化를 위해서도 國家經濟 次元에서 構造調整, 成長品目 選擇 및 選擇品目的 支援政策 등이 미리 발표된다면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農民이 상당히 설득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政府 쪽의 說明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畜協 등 農政을 맡고 있는 분들의 農民指導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84년 소波動도 投機性이 많이 있었고 요즘의 돼지 폭락도 投機性이 가미됐다고 보면 이런 무분별한 것에 대해서는 生產團體, 특히 畜協 등에서 農民指導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方向에 대한 說明이 미약했다고 본다. 그리고 소 飼育에 있어 상당부분이 外國穀物을 수입해서 기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外國에서 飼料를 輸入하는 것과 소를 輸入하는 것의 差異는 무엇인지 소를 수입하면 國內食糧資源 確保가 어렵고 飼料를 수입하면 乾燥은 건지 論理가 다소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듈다.

李在昱(聯合通信記者) : 여러분들께서 輸入開放化에 대한 發想의 轉換期에 왔다고 했는데 이미 오래 전에 轉換期는 왔으나 政府와 農漁民의 認識轉換이 늦었을 뿐이다. 60년대 農業人口가 80%였는데 現在는 22.5%로 줄어 들었다. 이러한 變化에 따른 認識轉換이 안됐고 政府는 農業을 방치한 것 같다. 工業成長 과정에서 農業에 대한 對策을 안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問題가 대두되었다고 보며, 특히 農民意識 變化가 與件變化를 뒤따르지 못한 것은 政府責任이 더 크다고 본다. 農民이 따라갈 수 없

었던 것은 農民들의 고령화와 低學力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農民 스스로가 國際的 감각을 가지고 自律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政府主導의 教育이 先行했어야 했었다. 카톨릭 農民會, 기독교 農民會, 在野團體에서 하는 教育이 상당히 呼應을 얻고 있는데 이것은 農協, 畜協 등이 自信들의 利益을 대변하지 못한 까닭이다. 보다 합리적인 教育을 실시해야 하겠다.

農漁村을 食糧生產의基地나 저렴한 勞動力を 공급해 주는 곳이라는 農政은 벗어나야 하며, 그리고 農業所得의 向上에 한계가 있으니 農外所得增大를 위해서 農工並進을 해야 한다고 企劃院에서 農工地區開發 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모두 시도한 것이다. 새마을工場으로 두부工場, 가마니工場 등을 만들었지만 失敗했다. 工場이 건설되면 거기에 따라 社會間接資本, 休息施設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經濟企劃院의 經濟教育 内容을 보면 農漁民經濟教育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 ~ 40代 農民에게는 再教育을 통해서 스스로 對處方案을 교육하고 農漁村에 정착할 20대 젊은이에게는 農協大學이나 農村振興廳 같은 곳에 農漁民 大學을 만들어 그들이 本質的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農林水產部에서 “流通豫告制”를 실시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생각은 經濟教育의 不在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金義泰(京鄉新聞 記者) : 발등에 떨어진 쇠고기 問題로만 줄여서 말씀드리겠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主務部署인 農林水產部가主管을 가지고 責任있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農林水產部 主務課에 가서 소의 生產費를 물었더니 答을 안한다. 資料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發表를 안하는 이유를 알것 같다. 2월 5일 現在 큰소 값이 1,150,000 원이다. 그러나 작년말에는 불과 백만원에 턱걸이도 못했다. 現在 소값이 1,150,000 원이면 충분히 生產費를 빼고 남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하면 主務部處인 農林水產部가 소를 輸入해도 된다는 뜻이 되니 이야기가 안된다는 그런 느낌을 일부 받았다.

지금 정도의 소값 수준이면 결코 農民들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 들이 이야기 한다. 現在 소값이 生產費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農林水產部 가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記者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企劃院이 너무 越權을 하고 있다. 主務部處 出入記者가 經濟企劃院 出入記者 보다도 內容을 더 모르는 實情인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美國과의 무역마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소값이 계속 안정되고 또 上昇勢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에 관한 原因을 農林水產부가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쇠고기가 최소한 3,000 ~ 4,000 톤 정도 輸入해야 할 경우에 國內價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農林水產부 當局者나 많은 關係者들이 心理的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心理的인 영향이란 往年에 겪었던 타격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 때는 소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를 팔려 갔던 農夫가 소를 빼려 죽이는 사태 까지도 발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160명의 養畜農家를 대상으로 輿論調查 한 것을 보면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生牛를 도입할 경우 畜產을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75%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밀쳐서가 아니라 그때의 惡夢이 안떠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신 있게 農林水產부가 모든 것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 專門家, 또 農林水產부 當局者들에게 당부 내지 힐난 비슷한 發言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非農水產關係者들에게도 오늘의 이 현상을 모든 視覺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과연 오늘날 우리 農業이 이렇게 劣惡하고 어려운 상태에까지 오게 된 原因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해야 된다. 올해는 GNP가 3千弗時代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農業을 팽개칠 것인가? 아니냐? 매우 심각한 問題이다. 좀전에 지금 都市民의 80%가 農民이라고 했는데 저도 아주 가난한 漁村의 아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울와서 출세했다고 해서 農漁村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 점을 具 局長님 그리고 關係人們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政策遂行에 農民 그 이전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李錫九(中央日報記者) : 다소一般的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政府의 政策이란 항상 신뢰와 一貫性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國民이 따르고 어떤 政策이 수행될 때 다소 자기에게 손해가 가거나 어떤 階層에 피해가 간다할 때 콘센서스가 이루어 진다. 우리 政府는 어떤 問題에 대한 政策을 결정하기 전에 國民에게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不實企業 問題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海外建設, 海運問題, 造船問題 등의 不實企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國民들에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 大韓船州 問題를 처리할 때 4,200 億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출은행의 貸出比率로 나누어 貸損償却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해도 國民들에게 알리지 않으니까 國民들이 납득을 안하고 뒤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不實企業을 처리하면서도 法定管理를 택하면 큰 問題가 발생하지 않는다. 法院이라는 第3者가 客觀的인 位置에서 保存處分 決定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國民이 비난하지 않는다. 法定管理를 해서 소생할 確率은 5%도 안되지만 다음에 그 企業이 도산해도 法定management라는 절차를 택했기 때문에 國民들이 납득을 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다.

쇠고기 輸入問題의 경우도 결국은 輸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經常收支黑字가 昨年에 100億弗 가까이 되고 95億弗의 對美黑字를 내며 우리는 競爭力 있는 것을 다 팔아 먹으면서 우리 國內問題 때문에 쇠고기 輸入 못하겠다 하면 美國의 立場에서 不公正 去來라는 것은 당연하다. 昨年에 이미 우리 經濟의 最高 當局者가 輸入을 하겠다고 美 야이터한테 말해 놓고 大統領 選舉때문에 미루어 온 것은 國民을 속이는 일이다. 또 어떤 報道資料에는 쇠고기는 절대 輸入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해 놓고 지금와서 쇠고기 輸入하겠다 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우리 經濟 全體를 볼 때 쇠고기 輸入을 안할 수 없다. 그러나 쇠고기 輸入에 따른 國內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타가 없다. 조사조차 안 한건지 發表를 안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被害額數가 얼마 안돼 301條 適用 받았을 때 우리는 農民들을 위해 끝까지 버텼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

고 301 條 適用 받으니까 이런 被害도 돌아온다. 그러니 무조건 보호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政策決定 過程이 國民들에게 한번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어렵게 되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國民所得이 2,900 \$ 가까이 되었고 올해는 3,000 \$ 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것은 옛날보다 굉장히 발전한 것이지만 아직도 상대적 빈곤감이 매우 심하고 앞으로 3~4 월이 되면 所得再分配 問題가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되는데 이럴 때 勞動者, 農民을 위한 政策이 더욱 필요한데도 지금 현재는 당장 타격을 주는 政策을 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農業部門에 대한 長期的 計劃을 세우고 計劃에 따라 輸入開放 問題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具博士께서 말씀하시길 農林水產部와 農經研이 그런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農林水產部보다는 企劃院이 主導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稅制, 金融 등 여러가지 支援對策과 產業構造調整 등 諸般 政策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을 總括할 수 있는 곳은 企劃院 뿐이라고 본다. 企劃院에서 必要한 專門分野別 學者, 農林水產部 關係官 등이 팀을 구성해서 主管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農林水產部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長期計劃下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國民에게 알리고 설득을 해 나가는 政策을 해야 한다.

權東燮(農林水產部 公報官) : 韓美通商 問題와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하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도 韓美通商懸案 問題를 보는 우리의 觀角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것이 經濟的 問題인지 外交的 問題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겠으며 먼저 經濟的인 문제라고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현재 政府의 對應方法이 다소 잘못된 것 같다. 만약 경제적인 問題라고 한다면 農漁民을 總括하는 農林水產部 가 적극적으로 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經濟企劃院에서 主導權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企劃院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農林水產部와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企劃院과 農林水產部가 똑같은 목소리로 나오고 外務部와는 外交的 觀點에서 다소 대립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弘報問題로서 이 자리에서 出入記者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저도 100%옳다고 보고 있다. 한 예를 들면 農產物 輸入에 임하는 韓國의 立場을 外信 또는 美國 特派員들로부터 듣는 실정이고 農林水產부의 立場은 農林水產부가 整理도 하기 전에 企劃院 當局에서 먼저 주도해 왔다는데 대해서 저는 매우 면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되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農產物 通商懸案問題에 있어 쇠고기가 始作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公務員들이 어떤 계층 보다도 愛國하는 強度가 강하다고 느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누가 開放을 주장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국노거나 美國의 앞잡이거나 農民들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좀더 統一된 목소리로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장되고 설득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세 번째는 言論界 報道問題다. 政府는 情報를 가급적 많이 공개를 하고 공개된 情報는 言論界에서 國益次元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言論이 이제까지 國益次元을 무시하고 報道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政府가 情報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 만큼 言論界에서도 國益이란 것을 이제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問題가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相互補完해 가지고 言論界와 政府가 적어도 國益次元에서 더욱 협조하는 關係를 유지했으면 한다. 저도 政府의 公報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까지 혁혁한 經濟成長을 이룩해온 것은 전적으로 經濟專門家들의 功勞라고 믿고 그분들의 業績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분들의 農漁村과 農林水產業을 보는 視角을 앞으로 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전체 국민의 20% 정도는 農水產業에 종사하고 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農漁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많은 애정을 갖고 民族的 뿌리이고 고향인

農漁村과 農林水產業 發展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李容撥 (每日經濟新聞 記者) : 지금까지 말씀한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責任의식 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企劃院이나 農林水產部에 모두 책임이 있다. 農水產物의 輸入開放 問題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對策을 세우지 못한 것은 農林水產부가 責任이 더 큰 것 같으며 지금이라도 改善策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따라서 農村의 構造改善 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農村人口 절반이 줄어야 된다는 主張에 대해 權代辯人이 反論을 제기 하였지만 제생각에도 農村人口는 틀림없이 줄어야 된다. 農政을 항상 保護政策만 내세우는데 그렇다면 보호를 해야 되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區分을 해야지 農村에 살기 때문에 農民은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는 論理는 앞으로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農村人口를 約 25%로 보고 있지만 農村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정도 밖에 안된다. 이것은 農村에 과다한 勞動力이 잠재한다는 의미로 農村人口는 틀림없이 줄여야 된다.

農產物輸入 問題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農民立場에서도 굳이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貿易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고 現在는 通商 相對國이 美國이지만 앞으로 西海岸時代라고 해서 中共이 다가올 것이고 中共하고 交易할 경우 우리는 工產品을 팔아야 하고 農產物을 輸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農產物輸入開放에 대해서 農民保護 측면에서 반대만 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쇠고기 消費 및 生產 추계를 보면 消費量이 더 많기 때문에 일부분을 수입한다 해도 그것이 農村經濟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趙鏞冠 (韓國經濟新聞 記者) : 企劃院에서 對美通商 테이블에 임할 때 마지막으로 제시할 쇠고기 輸入量과 輸入時期를 具本英協力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압력 받고 있는 農產物에 대한 品目別 開放스케줄을 金漢坤局長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金在日(코리아타임즈 記者)：農林水產部에 출입한지 얼마안돼 細部的內容은 잘모르지만 세미나에 참석하여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農協, 売協, KDI 楊博士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 問題에 대한 接近方法과 視角이 보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 두 視角이 農產物輸入開放과 관련하여 우리가 접한 問題라고 본다. 여기서 市場開放이 世界的인 추세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이 모두 合意點을 찾았고 다만 開放過程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核心이 돼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通商問題가 어느 정도 심각하며, 어느정도로 農民의 生存問題를 위협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한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問題가 가장 크게 보이고 더 확대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人間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은 그 基準은 國益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를 먼저 갈라놓고 수술을 해야 끓다고 자기의 立場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태도는 政策立案 과정에서만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 까지 國益이 아니고 國內政治的인 이유 때문에 政策이 결정된다든지 결정된 政策이 변경된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 輸入問題만 하더라도 總選 이후에는 호텔용 쇠고기를 개방하는데 거의 합의한 것 같은데 과연 總選하고 쇠고기 輸入하고 國益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믿을만한 外國 소식통에 의하면 總選 이전에는 절대 들여올 수 없다고 못을 박고 協商에 임하니까 美國側에서는 그렇다면 總選까지는 봐줄테니 總選 이후에는 一般음식점까지 輸入을 확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좀더 근본적인 對應方案이 나와야 하겠다. 다음은 政策의 일관성 문제이다. 일관성이 없는 政策은 일시적으로는 농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長期的으로는 그 反對效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돼지고기 輸出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70년대 後半期, 80년대 초 日本에 台灣과 같은 양의 돼지고기를 輸出했다. 그 이후 값이 오르니까 輸出을 중단시켰다. 완전히 對日本 돼지고기 輸出의 길이 막혀버린 지금 다시 輸出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 日本 바이어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 당시는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니까 農民위하고 國民위한 것 같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 農民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每經의 李容撥 記者 말씀에 대하여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農民숫자를 줄이고 農地를 工場으로 만들고 해서 결국 農村을 없애 버리면 지금 農村問題가 줄어든다고 하는 發想은 곤란하다. 같은 맥락에서 畜産業을 포기하고 다른 所得手段을 확보 할 것이냐 아니면 畜産業을 振興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政策樹立과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農村이나 勞動現場에 가보지도 않고 農村問題, 勞動問題를 논하는 學者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한 가지 提案하고 싶은 것은 KDI 및 EPB에 계신 분들은 直接 農村에 가서 接觸을 해 보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점들을 느껴보고, 農村經濟研究院같이 農村에 愛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直接 通商問題의 前面에 나서서 通商問題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껴보는 것도 問題解決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지금 GATT會議 때문에 議題調整 등에 관한 豫備會議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긴급한 問題임에도 金局長께서는 적당히 잘 調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美國을 순진하게 보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農業基盤擴充과 構造變更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몇 달후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問題에서 論爭點이 핫잇슈에서 좀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楊秀吉 (KDI 研究委員) : 시골事情도 잘모르는 立場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였다. 제가 1983년초에 우리나라의 工產品과 農產品全般에 관한 輸入自由化 計劃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報告書를 냈다. 그 당시 商工部 및 農業關聯人們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英國의 經濟學者 알프레드 마샬은 知性人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가져야 된다고 하였다. 저자신도 따뜻한 가슴이 없고 農村에 대한 情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經濟學者로서 技術的인 事項을 가지고 接近을 하다보니 남의 눈에 그렇게 보인것 같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봐

야 되는데 저가 볼때는 農村을 너무 잘아시는분들 및 農經研에 계신 분들은 나무에 치중하고 KDI에 있는 저 자신은 工業, 農業, 합치다 보면 全體 經濟構造를 보게돼 錢을 보는 관점에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綜合的 인 面을, 또 農經研은 세부적인 内容을 하다보면 그것이 취합이 되어 좋은 政策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것도 깨우쳐 주는게 아닌가 한다. 단지 그 당시에는 農業에 輸入自由化가 불가피하니 그것을 能動的으로 활용하자는立場을 展開할 때 가졌던 의문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이 우선 전제로 農業과 農村이 다르고 農民과 農業이 다르다는 것이다. 農民이 시골에 살고 있지만 農業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가지도 할 수 있다. 農業을 축소 허용한다고 해서 農民을 저버린다면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인 것 같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農村所得을 위해서 許博士께서 農業近代化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農業投資를 두세배 늘리면 農業所得이 都市의 所得水準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항상 懷疑를 가지고 있고 이런 質問을 했을 때 깨끗하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農外所得 投資가 지금 구름잡는 이야기고 당장은 안된다고 합니다만 5년 전에도 그랬다. 5年을 2倍하면 10년이 되는데 우리가 6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전체 工業化가 된 패턴의 속도를 보면 엄청나게 빨랐다. 60년대초 農民 혹은 農業의 國民經濟 비중이 70%였는데 보는 척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은 20% 내외로 떨어졌다. 20여년 사이에 저는 農外投資를 위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農村 혹은 地域社會開發을 主要 内容으로 하는 開發計劃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短期的인 政策은 계속하다 보면 長期的으로 바람직한 정책하고 反對方向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우되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農村의 教育施設 등도 지금부터 착수해야 한다.

끝으로 開放政策은 農業에 관한 한 제가 이해하기에는 301條를 적용할 때 까지는 봐주겠으나 그 이상은 못한다는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용반

기 전에 스스로 對策을 세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農村의 活性化도 기하자는 것이다. 요즘 제가 商工部 關係者들을 만나면 그 당시에는 틀렸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輸入하다보니 國內的으로 問題도 없었고 결국은 美國의 通商도 工產品 쪽에서는 큰 문제가 안생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듈다.

具本英 (EPB 第 3 協力官) : 企劃院의 役割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企劃院 高位當局者가 農林水產部와 事前協議없이 美國側에 쇠고기 輸入을 약속했다는 것은 틀린 것이며 그 중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 안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農林水產部가 할 일에 대해서 왜 企劃院이 카드를 만들고 너무 지나치게 越權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였는데 카드는 企劃院에서 만들 수가 없다. 農林水產部에서 만들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協議를 해서 만들기는 합니다만 企劃院에서 단독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겠다는 이런 約速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農林水產部 뿐만 아니라 다른 部處도 마찬가지로 開放問題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를 하고 있는 利益集團에 해를 주는 그런 일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풀다보니까 나중에 전반적으로 換率問題에도 영향을 미치고 通商關係를 악화시키게 된다. 아주 단적인 예가 작년에 美國側이 66개 品目 開放을 요구하면서 開放스케줄을 부탁했다. 거기에 대해 農林水產部가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 가지고 92년까지 4개 품목을 개방하는 것으로 했다. 66개 품목 중에 4개 품목을 開放하겠다고 제시했을 때 美國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GATT에 12개 품목을 제시하는 식으로 나중에 66개 품목을 한꺼번에 開放要請 받을 경우 닥쳐올 충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66개 품목을 몇년 내에 개방하는 品目리스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본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했는데 農林水產部 立場에서도 그것은 어렵다. 거기에는 經濟 뿐만 아니라 外交的 問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徐箕源(農協大學 教授) : 楊秀吉博士 말씀에 異論이 있다. 國益과 農民이 別個인 것처럼 理解돼서는 곤란하고 農民도 하나의 國民集團을 형성하는데 國益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본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것 같다. 단지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다를 것 같다. 農村所得도 農業所得에 한계가 있으니까 農外所得을 늘려야 된다 하는데 農業所得도 늘려주고 農外所得도 늘려 주는 方法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農民立場에서 301條가 어떤 힘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美國이 6차례 활동을 했는데 EC와는 서로 맞불어 싸웠고 昨年에 日本이 반도체 때문에 3億弗 얻어 맞은 것이 끝이고 제일 큰 것 같다. 이것도 協商過程에서 대충 1억 \$로 낙착이 된 사실이 있다. 日本은 오랫동안 쇠고기, 오렌지와 싸울 때 通商省이 農協을 통해 農民을 주동해 가지고 政府立場을 代辯했다. 그러한 協商테크닉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座長 : 이제 發表者들이 발표한 内容에 대해서 理解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漢坤(農林水產部 農政局長) : 農政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5년, 10년 장기적인 對策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政策을 다루고 있는 實務者の 한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점을 먼저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 다만 政府도 農林水產部 立場에서 보면 예를 들어 輸入代替를 위해서 참깨, 땅콩 등의 複合營農 推進이라든지 작년에 輸出增大를 위해서 사과, 배를 輸出戰略으로 결정을 했고 화훼도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펴고 있다.

政府에서 農漁村問題에 대한 시각전환은 農漁村綜合對策이 마련된 86년부터 태동이 되었다고 본다. 그때서야 비로소 關聯部處가 自己分野에 投資를 늘리면서 農漁村問題를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農林水產部의 혼자 힘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具局長께서도 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

그다음 우리가 5대 農產物의 輸入國으로서 利點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農產物輸入開放率이 낮았던 것도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이고 지난번 韓美經濟協議會에 참석했을 때도 美國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 쇠고기 問題와 관련해서도 兩國間의 協商이지만 美國側도 요구하는 100% 내용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問題 역시 農產物 5大 輸入國 이라는 것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안일하게 5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쇠고기 輸入開放이 절대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農產物 輸入開放政策에 대해서 農林水產部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계획없이 지금까지 임해 왔다고 이야기 한다면 섭섭한 이야기다.

施策의 일관성 問題에 관해서는 과거에 돼지고기 輸出을 하다가 國內物價 때문에 중단을 했고 사과, 배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青瓦臺에서 주관하는 對日輸出擴大方案을 세울 때도 강력히 主張했지만 하나의 輸出市場을 개척해 놓으면 그것을 잘 확보해야 하는데 物價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일시에 중단을 하게 되니까 다시 市場을 개척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物價問題에 대해 청와대까지 신경을 쓰고 있으니 農林水產部의 애로가 많다.

끝으로 소 適正頭數 및 生產價格은 基本的이지만 畜產局과 여러번 협의도 했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어느 時期에 가서는 분명히 밝혀지리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農林水產部의 該當局에서 作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李載玉(農經研 首席研究員) : 楊秀吉 博士가 指摘한 코멘트에 대한 답변이다. 쇠고기 輸入을 하면서 하필이면 農民利益團體에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맞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林水產物 輸入에 있어 밀이나 콩같은 것을 보면 農協 徐教授의 지적처럼 世界穀物市場 價格이 34% 떨어졌는데도 飼料에 반영된 가격은 불과 몇 퍼센트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農產物 輸入權을 얻음으로써 얻는 不當利得이 生產者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消費者에게 有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왕 쇠고기를 輸入

할 것 같으면 生產者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農民團體에서 輸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不當利益에도 개입하지 않는 정직한 團體가 있다면 아무 단체에서 輸入을 해도 괜찮다고 본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一般經濟學者 및 대부분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農產物은 比較優位가 없기 때문에 比較優位가 있는 自動車를 팔아 農產物을 수입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比較優位만을 뜻하지 楊秀吉 博士 지적처럼 利益을 보는 集團의 利益이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所得再分配가 일어나서 결국 純粹利益이 생길 경우에 國際貿易이란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손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발은 없다고 어느 經濟學者가 말했지만 經濟界의 政策決定이 各 利益集團의 힘이 균등한 상태에서 결정되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農民이 전체 국민의 20%가 되는데 20%에 해당된 만큼 利益集團으로서 힘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民主化가 되고 農民들이 20%의 投票權을 행사하게 된다면 輸入開放에 따른 政府의 費用負擔도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許信行(農經研 研究委員) : 여러분들께서 아주 시원하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배를 맞았지만 시원하게 느껴진다. 특히 言論人們의 예리한 코멘트는 어느 討論에서보다도 유익했다고 믿어진다.

전반적으로 意見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고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言論人們이 한결같이 지적해 준 轉換期 問題, 事前對備 問題, 일관성 문제 등에 대해 가슴아프고 반성해야 하며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學者들에게 責任이 있다고 본다. 韓國農業이 轉換期를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 研究院에서 79년 제일 먼저 發表한 바 있는데, 사실 分析을 해 놓고 보니 轉換點은 68년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10년이 지나서야 研究機關이 겨우 轉換期를 파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시행착오는 社會費用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學界에 일단 그 責任이

있다고 자성을 한다.

다음에 KREI 에 5년, 10년 이후 計劃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전 발표한 것은 開放化의 준비가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近代化를 이루어야만 開放化가 준비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近代化를 위해 農業投資를 倍로 늘리면 農家所得의 都農間 均衡維持와 農家所得의 倍增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楊博士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開放化에 대비하여 農業을 近代化 한다는 것은 基盤을 近代化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開放化에 대한 준비도 될 것이다. 방금 農業投資를 倍로 한다고 했는데 과거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倍까지 늘릴 필요도 없고 또한 돈 안들이고도 開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땅이 작기 때문에 不在地主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떤 형태로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農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덴마크같은 나라는 5년 이상 農事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땅을 구입할 수 없다. 우리는 땅이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不在地主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묘지도 좋은 땅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4천년 끝은 밭도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土地를 農民들에게 돌려 주는 政策을 먼저 施行해야 하고, 土地所有 上限線을 풀어야 하며, 묘지제도도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다음 野山, 밭, 천수답 등을 요즘 都市 無許可住宅再開發하듯이 조그만 계단식집 헐어 버리고 아파트 짓는 식으로 야산밭, 천수답을 밀어버리고 耕地整理를 하여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農家戶當 耕地規模를 늘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영세소농으로서 農業을 아예 못 할 사람은 都市工業쪽으로 보내고, 基幹農家를 중심으로 機械化 營農이 가능하도록 再開發하고 水利施設 잘해서 農民들에게 돌려주면 市場原理, 價格原理에 의하여 적응해 나갈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밭이나 논 등 耕地基盤이 擴大造成되어 있다면 어느 한 品目을 輸入開放해도 農民들 스스로 價格메카니즘에 의해서 다른 品目으로 轉換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市場原理에 따라 自動的으로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성장될 품목은 성장하리라고 믿어진다. 며칠 전 어느 경제관료가 農業의 生產性이 낮기

때문에 농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실제 우리가 投資收益性 分析을 할 때 工業은 短期에 높은 收益性을 갖지만 農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基盤造成을 해놓으면 그 위에서 수만년 자자손손 대대로 農事를 짓기 때문에 5년 또는 10년 후의 投資收益性만 추정하여 공업과 비교, 농업의 투자수익성이 낮다고 말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農業만큼 投資價值가 높은 것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農業에 대한 投資收益性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도 農業의 비교우위에 대해 論爭만 했지 代案을 내놓고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討論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座長：農經研에 온지 8년이 됩니다만 오늘같이 長時間 會議하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記者분들의 센스있는 말들을 우리가 아프게 받아 들여야 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빈

면

政策討議시리즈35

農產物의 輸入開放과 韓國農業의 課題

1988년 5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4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止